



時計塔

SIGETOP



2010년 1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7권 1호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李成春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李惟贊 徐亮 盧在煜
李元澤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The 27th Annual Medical Convention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조트인 디즈니랜드에서 제27차 연례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훌륭한 연사들의 학술강의와 더불어 유명골프코스에서 즐기는 골프대회,
또 서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등이 동문여러분과 가족들 모두에게
만족을 드릴것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March 17(Wed) ~ 21 (Sun) 2010

Paradise Pier Hotel

Anaheim, CA 92802



The 27th Annual Medical Convention Program

GENERAL PROGRAM

March 17, 2010 (Wednesday)

4:00pm-5:30pm	House Delegation Meeting
4:00pm-7:30pm	Registration
5:30pm-7:30pm	Welcome reception for members and family

March 18, 2010 (Thursday)

6:00am-6:30am	Continental breakfast and registration
6:30am-11:00am	Scientific and non-scientific sessions
11:30am-6:00pm	Leisure activity
7:00pm-11:00pm	Opening Ceremony, entertainment and dinner

March 19, 2010 (Friday)

6:00am-6:30am	Breakfast
6:30am-11:00am	Scientific and non-scientific sessions
11:30am-6:00pm	Leisure activity
6:00pm-	Free time for class reunion or family time

March 20, 2010 (Saturday)

6:00am-6:30am	Breakfast
6:30am-11:10am	Scientific and non-scientific sessions
11:10am-	Leisure activity
7:00pm-11:00pm	Grand Banquet

March 21, 2010 (Sunday)

Adjournment

NON-CME SESSION

March 18, 2010 (Thursday)

Moderator: Mrs. Joon Hi Choi

7:00am-8:00am	Breakfast
8:00am-8:30am	"Light Travel" - Mrs. Joon Hi Choi
8:30am-9:00am	"Practical Advice on Managing Income Property" - Mr. Peter Lee, Esq
9:00am-9:10am	Break
9:10am-9:40am	"Laser Skin Care" - Dr. Min Young Cha
9:40am-10:30am	"Waltz Line Dance" - Mrs. Vivian Kwak

March 19, 2010 (Friday)

Moderator: Dr. Won Il Choi

7:00am-8:00am	Breakfast
8:00am-8:30am	"Face Lifting" - Dr. Jung Kil Park
8:30am-9:00am	"How to Welcome our Death and Dying" - Dr. Sok Lee
9:00am-9:10am	Break
9:10am-10:15am	"Hawaiian Dance" - Mrs. Clara Kim

March 20, 2010 (Saturday)

Moderator: Dr. Jung Kil Yin

7:00am-8:00am	Breakfast
8:00am-8:30am	"A Journey of van Gogh" - Dr. Sechin Cho
8:30am-9:00am	"Movie
9:00am-9:10am	Break
9:10am-10:15am	"Hawaiian Dance" - Mrs. Clara Kim

AFTERNOON PROGRAM

GOLF TOURNAMENTS

March 18, 2010 (Thursday)	1:00 pm Shotgun start Aliso Viejo Country Club
March 19, 2010 (Friday)	1:00 pm Shotgun start Tustin Ranch Country Club
March 20, 2010 (Saturday)	1:00 pm Shotgun start Strawberry Farm Country Club

NON-GOLFERS PROGRAM

March 18, 2010 (Thursday)	Getty Villa Tour
March 19, 2010 (Friday)	Laguna Beach Art Gallery Tour
March 20, 2010 (Saturday)	Shopping at South Coast Plaza

HOTEL INFORMATION

Paradise Pier Hotel

Address: 1717 South Disneyland Drive, Anaheim, CA 92802
 Room Rate: \$139.00 no later than 2/17/2010, the cut off date.
 By Internet: <https://resweb.passkey.com/go/seoul2010>
 By Phone: 714-520-5005 Fax: 714-520-7097

SCIENTIFIC SESSION (Category 1 CME)

March 18, 2010 (Thursday)

Moderator: Hong Pyo Lee, M.D.

6:00am-6:30am	Registration and breakfast
6:30am-6:40am	Presidential welcome and opening remarks by scientific chair
6:40am-7:00am	Dean's Speech
7:00am-7:40am	"The University Hospital' and 'Optimal Treatment of Cervical Cancer'" Noh-Hyun Park, M.D.
7:40am-8:10am	"History of Narcotics and Modern Pain Management" Hyung-Kee Sheldon Cho, M.D.
8:10am-8:40am	"Fertility and Aging" S. Samuel Kim, M.D.
8:40am-9:10am	"Genetics of Aging" Soo-Sang Kang, M.D.
9:10am-9:30am	Refreshment break
9:30am-10:00am	"Therapeutic Hypothermia after Cardiac Arrest" Edward Hitack Jeon M. D.
10am-10:30am	"Hypertension: Optimal Treatment" Byung Hee Oh, M.D.
10:30am-11:00am	"Electroacupuncture for Stroke Paresis" Jeung Ho, Choi, M.D.

March 19, 2010 (Friday)

Moderator - Sung M. Park, M.D.

6:00am-6:30am	Registration and breakfast
6:30am-7:00am	"Past, Present and Future of Central Nervous System Infection" Kwang Sik Kim, M.D.
7:00am-7:30am	"Role of Antivirals for Korean Americans Patients with HBV associated with liver diseases" Hie-won Hann M.D.
7:30am-8:00am	"Abdominal and Pelvic Pain of Musculoskeletal Origin" Luke Yushik Kim .M.D.
8:00am-8:30am	"Percutaneous Aortic and Mitral Valve Repair" Michael Kim, M.D.
8:30am-8:40am	Refreshment break
8:40am-9:10am	"Intrastromal Abdominal Hysterectomy - a cost-effective method" William Han, M.D.
9:10am-9:40am	"Prediction and Monitoring of Therapeutic Response" E. Edmund Kim, M.D.
9:40am-10:20am	"Update on Adipose Tissue derived Mesenchymal cell therapy" Tai June Yoo, M.D., PhD.
10:20am-10:50am	"B Cells in Autoimmune Diseases and Lymphoma Genesis" Young Sung Choi, M.D.
10:50am-11:20am	"Cosmetic Surgery for Asians" Jungil Park, M.D.

March 20, 2010 (Saturday)

Moderator: Sok Kyu Lee, M.D.

6:00am-6:30am	Registration and breakfast
6:30am-7:00am	"Common Voice Disorders" Leopold Kim Yin, M.D.
7:00am-7:30am	"Gender Identification for Olympic Games" Sechin Cho, M.D.
7:30am-8:00am	"Interpretation of ALT as a test for liver diseases" Woong Ray Kim, M.D.
8:00am-8:30am	"Cardiac Rhythm Devices for Congestive Heart Failure" Marc J. Girsky, M.D.
8:30am-9:00am	"Colon Cancer Screening: Current Recommendations" Christina J. Seo, M.D.
9:00am-9:10am	Refreshment break
9:10am-9:40am	"Alzheimer's dementia, the disease of the 21 st century" William Sewan Baek, M.D.
9:40am-10:10am	"Management of Diabetes in Modern Era" Do Eun Lee, M.D.
10:10-10:30am	"Minimally Invasive Spinal Surgeries" Tae Shin, M.D.
10:30-11:00am	"Stroke Care" David Doojin Kim, M.D.

Credit Designation Statement

The Long Beach Memorial Medical Center designates this educational activity for a maximum of 12 category 1 credits toward the AMA Physicians' Recognition Award.

Each physician should claim only those hours of credits that he/she actually spent in this activity. Long Beach Memorial Medical Center is accredited by the California State Medical Society Committee on CME Accreditation to provide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for physicians.



新年辭

동창회장 이성춘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경인년, 호랑이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웬지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힘이 솟아오릅니다.
 용약하며 포효하는 웅장한 모습과 함께 뭔가 가슴이 활짝 열리며 꽉 막혔던 응어리가 땀 뚫리는 기분입니다. 세기에 한번 올까 말까 한다는 심각한 경제, 전쟁, 자연재해 등에 숨 한번 제대로 쉬기가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크게 기지개를 펴는 용비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우리 동창회는 그동안 다져온 굳건한 토대 위에서 별로 어려움 없이 지난해를 보내고 새로운 운이 감도는 희망의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동정중이라 할까, 밖으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동창회는 여러 가지의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미시간에서 convention이 열렸고, 이곳 LA에서는 남가주 의대동창회에서 몇 번 모여 친선과 의학 세미나, 본국 서울대학교 병원 LA 사무소의 동문 친선의 밤이 있었고 미주동창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전달, 미주동창회 선발 함춘 의학상 선정 및 수상, 함춘대상 추천, 그동안 다소 확실치 않았던 China Medical Board Fund 추적 및 확인, 그리고 기타 local chapter에서도 많은 활동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한 국가의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금지와 함께 겸손의 덕을 지녀 왔습니다. 여러 곳에서 흩어져 각자의 본분을 성실히 지켜가고 있는 우리 동문 모두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동문여러분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각 지역에 있는 로컬 챕터가 좀 더 활성화 되어 동문 상호간의 친선과 함께 어떤 행사를 같이 하여 각자 나름대로의 활동을 이어 나갔으면 합니다.
 동문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해 10대 아니면 5대 News는 무엇이었으며, 올해 5대 계획은 무엇인지요? 모두가 좋은 것으로만 장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금년 3월에 있을 Annual Convention에서 친구, 선후배가 오랜만에 만나서 정담과 함께 좋은 여행계획이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동창회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알아보았는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동문들이 등록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시겠지요. 그러나 가끔 우리 동창회도 관심과 협조를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동문소식, 아니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계탑 편집부나 동창회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우리들의 신문 '시계탑'도 한층 더 풍요로운 신문이 되리라 믿습니다.
 좋은 한 해,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릴랜드 지부소식

나수섭(50)선배님께서 금혼식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축하연을 베풀어 이곳 메릴랜드 동문 모두가 초대되어 많은 친지 동료들과 더불어 즐거운 향연을 가졌다. 남달리 애처가로 알려진 나 선배님은 젊고 아름다운 부인과 더불어 무척 젊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어 참석한 모두에게 한층 흐뭇한 감회를 갖게 하였다. 나 선배님께서 참석자들에 하신 감사의 말씀을 소개한다. - 한승업(59) 보고 - 감사의 말씀 -
 결혼 50주년을 축하 하는 자리에 오셔서 한결 즐겁고 뜻있게 하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결혼 후 한국에서 10년, 미국에서 40년을 살아 왔습니다. 50년을 지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고뇌의 학교, 고해(苦海)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각자 특이(unique)한 직물(fabric)을 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고뇌라는 이름의 어떤 아름다운 색채의 실타래가 있기에 예쁜 직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뇌가 없다면 어찌 삶이 아름다울 수 있으리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어제 보다 나은 오늘을 맞이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웃음 안에 살다가 웃음 따우며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는 뭔가 또 하나의 졸업장을 받는 듯 한 마음입니다. 미국사람들은 졸업을 다른 하나의 시작이라 하여 'commencement'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와서 알게 된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도 이 자리를 뭔가 또 하나의 시작을 위한 전기로 삼으려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1일 나수섭, 혜현 드립니다.

생신을 축하합니다

2009년 11월 14일, 이규용(41)선배님께서 93세 생신을 맞이하셨다. 부디 계속 건강하시기를 바란다.

故 송관호 동문 유가족, 장학금 1만불 쾌척

故 송관호(64)동문이 몸소 실천했던 모교 사랑, 동창회 사랑의 뜻을 기려 유가족들이 마련한 '송관호 장학금' 1만불이 작년에 이어 2010년 금년에도 동창회에 본부에 우송되었다. 본 장학금은 모교에서 추천한 재학생 1명에게 5천불이 수여되고, 나머지 5천불은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한 학생들에게 수여된다.

\$11.5 Million Grant from NCI

The UAB(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Comprehensive Cancer Center에서 일하고 있는 Warner K. Huh, MD는 \$11.5 Million Grant를 NCI로 부터 2009년 10월에 받았다는 소식이다.
 Dr. Huh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HPV Vaccine에 임상실험 연구를 해 왔다. 이 SPORE(Specialized Program of Research Excellence)는 UAB에서 아주 뜻있고 획기적인 연구를 위한것이라고 이 병원장은 말하고 있다.
 현재 Warner K. Huh, MD는 Gynecologic Oncologist로서 이곳 의과대학 및 병원의 부교수이면서 Associate Scientist이기도 하다. 그는 Alabama 주에서 최초로 "Robotic Surgery in Cervical Cancers"를 시작했으며 HPV Vaccine에 대한 초청강의를 미국내와 유럽의 여러 나라 그리고 아시아(한국, 일본 등)에서도 해 왔고 최근엔 Columbia-Cornell Univ. Hospital에서 Grand Rounds Speaker이기도 했다. 좀 더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 하시는 분은 whun@uab.edu로 연락 하시면 된다. (Dr. Warner Huh는 허선행(64)동문의 아들이다.)

TRAVEL INFORMATION

Los Angeles Airport to Anaheim Resort:

After exiting the baggage claim area, please proceed to the center inland. The Disneyland Resort Express picks up underneath the overhead GREEN sign.

- Hourly departures between 7:30am and 10:30am
- Departures every 30 minutes between 10:30am & 4:30pm
- Hourly departures between 4:30pm and 10:30pm
- Reservation are not required

LAX Fares: One-way \$22 (Adult) \$19 (Ages 3-11)
 Round Trip \$32 (Adult) \$25 (Ages 3-11)

John Wayne Airport to Anaheim Resort:

After exiting the baggage claim area, please proceed outside to the Ground Transportation Center. The Disneyland Resort Express picks up in front of the ticket booth located to the left.

- Hourly departures between 7:30am and 11:00am
- Departures every 30 minutes between 11:30am & 3:00pm
- Hourly departures between 3:00pm and 10:00pm
- Reservation are not required

SNA Fares: One-way \$17 (Adult) \$14 (Ages 3-11)
 Round Trip \$27 (Adult) \$18 (Ages 3-11)

To Purchase Tickets of Disneyland Resort :

Below is the link fo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Reunion Ticket Store:

- <http://www.disneyconventionear.com/GPSC10A>
- Ticket are valid from 3/14/2010~3/27/2010
- Twilight Ticket and 1 Day Ticket are
- NOT valid on 3/21/2010
- Ticket Store closes at 9:00pm PST on 3/13/2010

The 27th 2010 Annual Convention Registration Form

Name (English full)	(Korean full)	
Address		
Home Phone	Cell Phone	Office Phone
E-mail	Class	
Arrival Date	Departure Date	

Please make check payable to **SNUCMAA** and send to New York office address to 172-10 45th Ave., Flushing, NY 11358

REGISTRATION FEE

Members	\$350
(Members prior to Class of '58 or training')	\$200
Registration before December 31 will be discounted 10% \$315.00 or \$180.00)	
Opening Ceremony(Dinner and Entertainment) - Thursday, March 18, 2010	\$110 x = \$
Class Reunion (No official dinner banquet) - Friday, March 19, 2010	
Grand Banquet(Dinner and Entertainment) Hawaiian Luau Night Hawaiian Theme Dress recommended - Saturday, March 20, 2010	\$120 x = \$

GOLF (Lunch included)

Thursday, March 18, 2010 at Aliso Viejo Country Golf Club	\$115 x = \$
Friday, March 19, 2010 at Tustin Ranch Golf Club	\$115 x = \$
Saturday, March 20, 2010 at Strawberry Farm Golf Club	\$115 x = \$

NON-GOLFERS

Thursday, March 18, 2010 - Getty Village Tour	\$30 x = \$
Friday, March 19, 2010 - Laguna Beach Art Gallery Tour	\$20 x = \$
Saturday, March 20, 2010 - Shopping at South Coast Plaza	\$20 x = \$

Contribution to Annual Convention \$

TOTAL \$

회비, 헌금하신 동문 명단

2010년 1월 10일 현재

회비 납부하신 동문 명단

- | | |
|--|----------------------|
| 1947 장석주 | 1948 한용현 오동렬 |
| 1949 박근수 김지익 이형모 | 1950 주 일 한원봉 나수섭 이철남 |
| 1951 곽 흥 이재필 이상하 오정희 박준홍 | |
| 1952 김은태 김정준 박정식 | 1953 강수상 정약훈 김형건 이상봉 |
| 1954 이동식 | 1955 노용면 김용선 박병원 양거영 |
| 1956 조동립 도상탁 김익창 김신형 민병각 박상기 신명수 손종수 서상철 유효준 | |
| 1957 차봉희 정진목 정구영 정희영 동형근 김일훈 김양호 김용진 이민자 이동성 | |
| 임종식 임종식 윤 찬 | |
| 1958 최창송 한영수 김기태 김해암 김백년 김수산 김시한 김순옥 김석희 김윤범 | |
| 이동목 이종용 이종국 이만택 이희성 이운순 임영신 배영섭 박호현 박용화 | |
| 이상설 유치열 신상균 | |
| 1959 반용균 최대한 최종진 최혜숙 최용천 정병욱 정태진 한성업 한달수 임낙중 | |
| 강재룡 강상진 김병구 김병석 김교안 김은섭 김용덕 이교락 방석운 박형돈 | |
| 나길진 서경화 신한수 신영철 | |
| 1960 조재동 전희근 김인환 한성수 김택경 김영환 권기홍 이효빈 이덕송 이상일 | |
| 이순환 임종원 오신중 박춘명 박정우 박명근 임필순 염극용 | |
| 1961 안창현 장성환 조은순 최지원 최공창 최태순 최용성 정철용 황현상 정의철 | |
| 강창욱 강세부 김성준 김영철 김영기 김유홍 계훈택 이동해 이희백 이희경 | |
| 이재두 이재승 박준환 박장생 박승균 서영석 손주현 손기용 서휴열 양명교 | |
| 1962 장승필 진홍우 정 태 구정을 조명호 정정수 김한중 김석식 권익현 이상복 | |
| 이상무 이석우 이용길 문용길 남성희 오태요 박찬형 박진수 박종건 이상원 | |
| 이영웅 손영진 송영두 유충국 문상규 | |
| 1963 장세곤 조열하 조완원 추재욱 신경호 김태형 하상태 한광수 김택수 김충열 | |
| 김현학 김현철 김갑중 김광섭 김승태 김태용 김주용 고영희 권영조 이재명 | |
| 이종두 이종민 이기환 이능석 이승현 이범세 마동일 박세록 송용덕 왕규현 | |
| 양찬기 윤진수 윤영섭 윤영욱 선우건영 | |
| 1964 안연승 방효준 차용만 조성준 최준희 한성화 한태진 홍선경 허선행 전희택 | |
| 조동준 정유석 김태환 김용두 김용국 이재풍 이흥표 이종성 이정은 이광신 | |
| 유광현 이병훈 임대목 박한영 박세준 박성민 라찬국 이주영 이종우 이유찬 | |
| 유효명 유창남 신두식 양문택 유 강 윤흥기 송용길 이길수 선우세현 | |
| 1965 안경식 채무원 채도경 장재찬 조성구 정길화 전영균 홍수웅 강길원 구경희 | |
| 김육현 이범석 이한중 이한승 이화성 민경탁 박수안 이정희 서좌일 손광호 | |
| 황규정 한성학 | |
| 1966 장한교 조충열 조관상 조규용 최순재 최영자 한일성 허서룡 조의열 김충규 | |
| 김의신 김진호 김우신 김용재 이종현 이성근 이영일 민발식 남궁승 | |
| 1967 최무용 한영수 정 명 김성철 김태용 이준식 이정화 이근웅 이민우 이소희 | |
| 이영균 박정일 유진일 | |
| 1968 안세현 차재철 최 철 홍광신 김 철 김희주 김주평 김경인 김영남 고남규 | |
| 이건일 임공세 문광재 박정식 노영일 서진석 서관우 서운석 송창호 황훈규 | |
| 유우영 | |
| 1969 안병일 변영석 최종진 천양곡 정한규 김창남 김중권 김홍서 김운성 이지훈 | |
| 이충호 임용규 신영찬 송기인 송용재 엄규동 양재관 윤효윤 | |
| 1970 방준재 조영갑 최광택 최원일 조남현 김형달 이성춘 이석규 문성길 박홍식 | |
| 노승국 인정길 유희희 | |
| 1971 배성호 장 철 조세진 최수강 홍성진 황동하 강창홍 강태수 강유구 김 훈 | |
| 김효순 김일영 김재홍 김유식 김성환 고기영 이희영 이종일 이남수 이원택 | |
| 오동환 오상현 서정자 서상현 곽승용 | |
| 1972 오용호 장병호 최인섭 정희현 황용규 김재석 이신재 박명영 석창호 | |
| 1973 방병기 나두섭 이계석 민인기 오인환 임준형 서인석 심완섭 | |
| 1974 최태식 김웅진 구재훈 권철수 이홍재 | 1975 김자역 김명호 박인영 |
| 1976 정경화 한승신 김정아 유영길 | 1977 박일우 |
| 1978 김동수 | 1979 백승원 |
| 1980 박남훈 | 1981 김용환 최선희 남명호 박병열 |
| 1983 전원일 김봉섭 심인보 | 1992 조형기 |

Donation

- | | | | | |
|-------------|-------------|-------------|-------------|-----------------|
| 박근수(49) 75 | 김형건(53) 75 | 노용면(55) 500 | 김익창(56) 100 | 신상균(58) 100 |
| 한영수(58) 25 | 김윤범(58) 100 | 정태진(59) 25 | 강상진(59) 200 | 김병구(59) 75 |
| 이교락(59) 25 | 장성환(61) 100 | 김한중(62) 100 | 선우건영(63)200 | 송용덕(63) 100 |
| 왕규현(63) 200 | 장세곤(63) 200 | 이재풍(64) 100 | 조동준(64) 200 | 허선행(64) 200 |
| 구경희(65) 125 | 김주평(68) 75 | 이건일(68) 100 | 차재철(68) 75 | 변영석(69) 100 |
| 강태수(71) 75 | 김유식(71) 100 | 서상현(71) 75 | 서정자(71) 25 | 조세진(71) 100 |
| 오용호(72) 200 | 박인영(75) 50 | 김동수(78) 100 | | Total: \$ 4,000 |

2008-2009 Green Project Fund List

- | | | | | |
|-------------|-------------|-------------|-------------|----------------|
| 김신형(56) 500 | 최창송(58) 50 | 정태진(59) 15 | 한성수(60) 75 | 김태환(64) 100 |
| 민발식(66) 100 | 배성호(71) 100 | 서인석(73) 100 | 방병기(73) 100 | 백승원(79) 200 |
| 심인보(83) 100 | | | | Total: \$1,440 |

2007-2008 Charity Fund List

- | | | | | |
|-------------|-------------|-------------|------------|--------------|
| 서상철(56) 75 | 정태진(59) 25 | 박명근(60) 75 | 최영자(66) 50 | 조세진(71) 75 |
| 방병기(73) 100 | 김자역(75) 100 | 백승원(79) 200 | | Total: \$700 |

2010 Annual Convention Donation

- | | | | | |
|-------------|-------------|-------------|-------------|-----------------|
| 동형근(57) 75 | 김기태(58) 275 | 최창송(58) 100 | 정태진(59) 10 | 권기홍(60)1000 |
| 황현상(61) 100 | 손영진(62) 500 | 권영조(63) 500 | 김태용(63)1000 | 김현철(63) 75 |
| 조한원(63) 100 | 임춘수(63) 200 | 이흥표(64)2500 | 이근웅(67) 300 | 안병일(69) 875 |
| 윤효윤(69) 200 | 이석규(70) 500 | 이성춘(70)2000 | 김성환(71) 300 | 김유식(71) 100 |
| 김일영(71)1000 | 온기철(71) 200 | 장재철(71) 75 | 조세진(71) 200 | 곽승용(71) 100 |
| 나두섭(73) 200 | 서인석(73) 325 | 구재훈(74) 300 | 백승원(79) 300 | Total: \$13,620 |

합촌의학수상식과 본국 동창회에 다녀와서

동창회장 이성준

박용현 총동창회장의 2009년 12월 15일에 있을 합촌의학상 수상식 겸 합촌 송년회에 참가하면 내년(2010년)에 Disneyland에서 있을 convention에 소개할 시간을 주겠다는 약속에 참석하겠다는 편지와 eMail을 보냈다.

아직 full time으로 일을 하고 집수리를 막 시작한 시기에 office와 집을 비운다는 것이 다소 마음에 부담이 갔지만 동창회 선배님들과 학교,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야 되는 여러 가지 임무와 목적을 갖고 서울로 향했다.

이길여 회장님 방문

하루를 쉬고 12월14일에는 이길여 회장님을 방문했다. convention에 참석하여 달라는 편지를 몇 번 보냈고 비서진들에게도 전화를 하여 미리 방문날짜가 잡혀 있었다.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차를 보내 주셔서 경원대학교 총장실에서 약 30분간 이야기를 했다. 내년 convention에 오시라는 초청의 말씀을 드렸다. 한국 학교는 3월 초 개학이 되어 총장으로서 또 대 사업가로서 바쁘기 때문에 확답을 못하시겠다는 말을 듣고 총장실을 나왔다. 연세에 관계없이 열심히 정력적으로 일을 하시는 선배님에게 깊은 인상을 받으며.

장학금 수여와 의대생들과의 만남

12월 15일에는 아침 11시에 장학금 수여식과 의대생들과의 간담회가 그동안 여러 번 eMail을 통하여 계획되어 있었다.

학장님이 보내준 차로 의과대학에 도착하니 정말로 많이 변해 있었다. 별로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하루가 다르도록 변하는 한국의 발전상에 몹시도 놀랐다. 박양웅 부학장의 안내로 임정기 학장님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장학생 5명과 MEXIM 동아리 회원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후 짧은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학장님 간단한 학술적 발전에 대하여 보고와 장학생 5명의 미국생활담과 그들이 느낀 점을 들은 후 나의 미국생활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니 약 12시가 되었다. 학장님과 몇 분의 교수님들과 점심식사를 마친 후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놀라운 발전과 변화에 머지않아 우리도 노벨의학상이 올 것이라는 격려와 기대와 확신으로 교정을 떠났다.

합촌의학상 수상식

서울대 인문대 교수의 한국 역사의 재조명과 위대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다. 약 50분간 진행된 강의에 의학과는 다른 맛이 있었다.

의대생들의 짧은 performance가 끝난 후 의학상 수상식에 들어갔다. 4명의 수상자 중 우리 미주동창회에서 추천한 Johns Hopkins Univ.의 김광식 동문을 대신해 삼패와 상금, 꽃다발을 받았다. 김 동문은 본래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학교 스케줄이 바뀌는 바람에 못 온다는 연락을 받고 내가 대신 수상자라도 된 기분에 들떠 있었다.

2010년 Disneyland Convention을 소개하다

총동창회장의 인사말과 소개에 이어 단상에 오를 나는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놓았기에 정신없이 말을 이어갔다. 많이 참석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을 끝으로 단상을 내려왔는데 과연 나의 홍보활동의 결과는 어떨까? 며칠 후 나에게 eMail이 왔는데 본국동창회에서 brochure를 70장 더 보내 달라는 요청이 왔다.

많은 동기들을 만나다

어느 역대 동창회 밤보다 제일 많은 동문들이 왔다고 했다. 내가 만찬장을 둘러보아도 방 전체가 꼭 차 보였다. 나는 제일 앞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우리 동기 박상홍 총동창회 부회장이 나를 뒤로 데리고 갔다. 우리 동기가 두 개의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어느 동기들 보다 제일 많이 왔단다. 동기회장 김호균 군이 일일이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해서 왔다는 다른 동기의 말에 모두들 웃었다. 한두 명의 동기 외는 39년 전 얼굴이나 행동, 표정이 그대로였다. 시간은 지났어도 옛 시간은 그대로 이었다. 내년에 있을 졸업 40주년 행사를 간단히 이야기를 한 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행사장을 떠났다.

이 시계탑을 받을 때는 1월 중순이 될 것이다. 미주 컨벤션이 앞으로 약 2달 정도 남았을 것이다. 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많은 우리 동문들이 참석하여 정담을 나누고 서로가 격려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몇 동기 모임이 3월 컨벤션에 와서 하기로 했단다. 벌써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다 취소를 했더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 이 자랑스러운 동창회의 회장으로 보람과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동창회비 납입

Annual Dues & Contributions (July 1, 2009 ~ June 30, 2010)

MEMBERSHIP DUES	\$ 125.00
CHARITY FUND	\$
GREEN PROJECT FUND	\$
DONATION	\$
DONATION FOR 2010 CONVENTION	\$
TOTAL	\$

Name: _____ Class: _____

Please make your check payable to SNUCMAA / Your Dues and Contributions are Tax Deductible.

시간, 세월의 길이를 잴다든지, 느낀다든지... 이 일이 신비하다. 그때 그 나이의 내가, 그 때 그 세기에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공부에 열중하며 나의 미래를 건설했었지, 우리 200여명이었던 동창들은 모두 씩씩하게 졸업들을 했었고, 일찍이 외국으로 나간 이들, 군의관으로, 병원으로...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의학도의 삶을 일구어왔었지, 결혼들을 해서 자녀들과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일생의 경로들을 나름대로 겪으며 여기까지 왔겠다. 그간에 간간히 나는 소식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들려오던 이야기들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 나이까지 함께 살아온 셈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왔었다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렵지 않다. 친구들의 머리 위에 내린 세월의 하얀 눈이 빛나고 있고, 뛰어다니듯 걷던 우리들이 이제 온 발바닥으로 땅을 만지며 걷는다. 우리 서로의 눈과 눈 속으로 교환되는 무언의 느낌이 가슴으로 뭉클하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무엇인가가 나 외의 동창들도 뭉클할 것이다. 이렇게 긴 여정을 달려온 우리와 이 세월을 느끼면서 우리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존재가 된다.

우리 59년도 졸업 동창들은 우리나라의 그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고, 끊임없이 밀려온 새로운 학문에 열정으로 공부하고, 현재 세계의 발전에 도전하고, 내 개인 삶과 내 민족의 발전에 노력하면서 정진해왔던 도착점이 지금은, 여기, 2009년 10월 4일 이 교정인가 싶다. 50년 전에 여기저기로 떠나서 살다가 이렇게 만나보니 참 정들었던 친구들을 오랫동안 못 만나고 살았었구나 생각했다. 더구나 말없고 아무에게나 살갑게 굴지 못하는 내 성격으로 인해 내 마음을 전하지 못했었지만 궁금해오던 친구들을 만나니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또 한편 나는 그렇게 여러 친구들이 이 세상을 떠났었는지, 미처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실감해보니 참, 섭섭하고 안타깝다. 우리 동창들 중에 여러 친구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가 있고, 이번에 참석한 친구와 배우자까지 총 인원들은 110명이었다. 아, 이제 우리가 한 사람씩 서서히 이별을 하게 되는 때가 되었구나, 이번에 이렇게 만나고 나면 이다음에는 못 만날 것 같은 병약해 보이는 친구를 대할 땐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은 게, 아마 그의 모습에서 나를 느끼는 것 이다. 우리는 이날 모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야, 친구야, 모두들 모두들 건강하게 즐겁게 살자" 하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그 말을 나누었다. 이제부터는 매년 모이는 것이 좋겠다고 들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옛날부터 사람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는 특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름보다 별명이 먼저 떠올랐다. 만나자 마자 우리들은 어느새 현재의 나를 잊고 그 옛날의 나, 그때 그 동무들이 되어서 이름과 별명을 부르며 웃고 떠들었다. 몇 명의 친구 외에는 처음으로 내 동창들을 만나게 된 내 아내는 이런 우리들을 보고 웃음을 참다가, 또 참다가, 그래도 웃고 말았다. 색시, 과부, 맹초, 공갈... 가끔 내가 말해준 별명을 가진 친구들과 인사를 나눌 때마다 폭소를 터트리곤 말았다. 친구들은 내 아내가 자신들이 듣고 예상하고 생각했던 그런 형(?)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폭소를 터트렸다. 하여튼 웃겼다. 우린 재밌었다.

동문 중 48명은 미국에, 1명은 호주에, 그리고 80명은 북이 많아, 고향인 한국을 지키며 산다고 한다. 여자 동창 여섯 명 중 세 명이 참석하여서

이번 모임의 의미를 더해주는 듯하였다. 모교 방문을 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동안에 다 늙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그때 그 학창시절을 떠올리니 인생이란 참으로 새롭다고 느낀다. 특히 현재 서울 의대 학장이 우리 동창 임원기의 동생이라 하여 마음 뿌듯했다. 그들 형제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또한 기분 좋게 나누는 복덕

안에 고국 여행 중에 이렇게 들뜨고 기분 좋은 여행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큰 야심이나 깊은 근심 없이 그저 이 시간, 이 여행 자체를 즐기고, 답소하는 것이그 어떤 날처럼 아주 편안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친구들 역시 아주 여여하고 명랑하게 얘기들을 하고, 귀여운(?) 농담들로 배를 쥐고 웃게 했다. 지나가는 마을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에 다녀와서

김 병 석(59, 대뉴욕)



이다. 우리 59회 동창들이 모은 모교를 위한 기금과 동창회를 위한 기금을 전달하고 학교 교정을 돌아보았다. 본과 일학년 해부학 실습시간에 formalin에 찌든 시체들을 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것이 징그러웠다. 인간의 무상과 허무함을 느껴지는 것을 피하고자 실습은 안하고 밖에 나가서, 나와 같은 몇 친구들과 농구를 했던 추억이 생각났다. 그 덕택에 나는 해부학만은 재시험을 세 번이나 쳐서 겨우 턱거리로 통과 했다. 이때부터 이 미 나는 정신과를 공부할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나보다.

또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분위기는 절간 같았었고 지금의 분위기는 뭐랄까 부산 뭇대기 시장 같았다. 발전이나 현대화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성을 동반하는 가보다. 우리가 이만큼 나이 먹어 오는 동안, 한국의 사회, 경제, 교육, 의학이 모두 몰라보게 변해 있고, 또 그만큼 우리들의 모교도 눈에 드러나게 발전되어 있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창들 역시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살아왔다. 지역마다 봉사하고 모범된 한국인으로서 이민 역사를 지켜왔다고 본다. 특히 현재까지 유전자 세포연구와 치료에 열을 내어 활동 중인 유태준 친구를 만나니 힘이 나고 기뻐다. 다들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동안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병원에서는 은퇴한 후에 봉사겸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때야말로 의술을 넘어선 인술을 펼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기도 했다. 물론 의료보험제도와 의료 기술이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있는 우리의 조국 그리고 무의촌이 거의 없을 정도이지만 그래도 민생의 심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의사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마친 바로 그 다음날에 우리 동창들은 부부 동반으로 남해안 여행을 떠났다. 이런 날을 꿈과 같다고 해도 좋겠다. 햇수를 세어보니 미국 땅에 산지 45년 동

의 멋있는 참박 풍경에 가슴 속까지 흐뭇했다. 내 나라의 발전과 아름다움을 미처 모르고 있었던 내가 부끄러웠다. 그동안 어머니를 뵈러 오거나 감의나 행사가 있어서 한국에 왔을 때 잠깐씩 둘러보던 여행길에서 솔직히 그저 그런 고향의 향수와 추억 정도를 느끼곤 했었는데... 이번 감동은 그때와 판이하게 다르다. 아내의 예술과 저술 활동 일환으로 우리 부부는 몇 년 사이에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다. 미국 내 이곳저곳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집트, 중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남미, 아마존, 페루 등등...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대단한 관광 명소가 있으면 하고,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 남해 여행은 산야의 자연이 참 아름답고 작은 섬들이 앉아 있는 해안이 지극한 평화로움을 안겨주었다. 또 다시 오리라 마음먹었다.

남해로 향하면서 차 속에서 친구들의 노래도 듣고, 만담도 실컷 즐겼다. 남해 여행에서의 마지막 날 친구들과의 헤어지는 시간이다 싶으니 마음이 자연히 가라앉았는데, 가까이 있었을 때 바쁘다 어쩌다하고 개인적으로는 자주 못 보았던 뉴욕 동문인 박선용의 노래 부르는 모습과 그들 부부가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자니 나도 모르게 눈이 젖었다. 우리 나이에 큰 차이 없이 다 그렇긴 하지만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친구들을 보면 영 마음이 짠하다. 친구들아, 제발 건강들 하자, 이제야 우리 인생에 여유와 편안함과 자유를 만끽할 때인 만큼...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이 아니냐.

남해 여행 다음날 일본으로 떠났다. 일본 여행은 우리 10년 후 배들 일행과 함께하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서 또 다른 것들을 느끼고 나누게 되어서 참 귀한 기회가 되었다. 혹시 나이 먹은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폐나 되지 않을까 내심으로 걱정을 했었는데 후배들의 친절한 배려로 긴장 없이 좋은 여행을 마쳤다.

식민시대때 일본인들과 지냈던 기억과 민족 공동 감정과 내가 평소에 가

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올 수 있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나이 또래 한국인들이 그렇듯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 누적된 채 현재의 일본이나 우리들의 지금 상황을 투명하게 드러나 보는 경우가 적었다. 이번 여행에서 일본의 깨끗함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생활환경과 정돈되고 질서 있는 일본, 그리고 조용한 일본인, 친절한 그들의 태도와 안정된 감정 표현, 단정스런 아름다움을 보고 왔다. 우리 동창 다섯 명은 오래만에 일본말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즐기기도 했다. 옛날처럼 술술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불편을 면할 수 있었다.

일본인들을 은근히 미워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도 그들과 정당하게 경쟁하고, 당당하게 나누는 이웃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내와 가끔 시장보러가서 일본제 물품이나 식품을 사면서 나누는 대화가 "우리 한국인들은 머릿속에 들은 <일제>는 못 버리면서, 정신대가 어찌고, 독도가 어찌고... 하고 있으니 어느 때에나 일본과 직시하며 마주설까" 싶다고 ...

오사카 히메지성, 법릉사, 동대사, 오사카성 천수각, 교토를 떠나 청수사, 금각사에 들러 기모노 쇼 관람 후, 교토 역에서 신칸센으로 오다와라에 도착하여 하코네에서 노천 온천을 즐겼다. 오와쿠다니에서 검은 계란을 먹으며 후지산을 건너다 보았다. 하코네의 아름다운 자연, 다시 호수를 낀 삼나무 오솔길이 참 인상적이다. 동경에 도착하여 황거와 명치신궁을 둘러 오다이바로 가며 레인보우 브릿지와 자유 여신상 등의 색다른 동경 야경을 구경할 수 있었다. 닛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조공, 계곶폭포, 유가타 사진 촬영 등으로 딱 짜인 일정이지만 만족하며 즐겼다.

특히 일본 온천지에서 마지막 날을 보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 모두에게 그들 고유의 의상을 입게 하여 완전 일본 민속음식으로 저녁 한끼를 마련해주었다. 와우 남자들도 멋있었지만 부인네들의 모두 다른 기모노 차림의 행렬은 정말 화려하고 축제 분위기를 내주었다. 후배들과 우리들은 마구 섞여서 사진을 찍고 찍어주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바쁜 일정에 맞춰 움직이던 과정에서 이날 저녁엔 선.후배간에 함께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다. 후배들의 발언을 들으며 참 자랑스럽고 고마웠다. 마음속으로 앞으로 그들이 더 건강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며 잘 살아주기를 기원했다.

동창들인 친구들이지만 다 각기 다른 나이가 느껴지고, 이제 확연하게 선 각각의 자화상이 보였다. 그동안 그들이 살아온 자취와 이루어낸 업적을 나누어 들으면서 그들의 삶과 노력과 능력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고마움을 느꼈다. 졸업하고 떨어져 사는 긴 세월동안 다른 전문 분야와 그들 나름대로의 가족생활이나 취미 생활로 풍겨 나오는 개성과 품위가 다양해서 아주 재미있게 나누게 되었다.

가난하고 암울했던 조국의 시대를 거쳐, 이 시기에는 발전된 조국인 한국의 자랑스러운 후예로서, 최고 지성의 자부심을 지니고 살아온 우리들이 현재 삶과 미래를 위해 남겨둔 것은 무엇일까? 각각 자신마다의 행복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은 같은 것... 무엇일까? 우리에게 남은 날마다의 삶에서 단순한 기쁨과 스스로 만족하는 지혜 또한 축복이라 믿는다.

친구들, 고맙다, 또 만나세, 건강하게 즐겁게 또 여행을 하자고...

2009년 10월

한겨울의 복판에서 가을 이야기를 읽으려면 색깔이 사뭇 다르다. 그래도 그 때의 혼혼함이 그리워 짧은 만남 긴 이별의 사연과 현장을 따라 가 본다.

고국의 정취는 언제나 아름다웠다. 가을의 서정이 불붙은 고국산천을 배경으로 한 40주년 기념행사의 장면들이 흐려진다. 더 늦기 전에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가득했던 닷새 동안의 일들을 기억해본다. 우리들 인생의 거대한 로망 중에 동창생과의 因然과 사건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없다.

황혼 이별쯤이야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일상을 접고 서울로 향했던 일이 이주 전이었다. 만나고 헤어지는 장면들이 순간순간 떠오르고 지워진다. 어디 순간이 아닌 인생사가 있으랴. 우리들은 40년도 前의 모습과 습성을 기억해주고 사건 등을 증언해주는 서로의 化石과도 같은 존재였다. 백만 년 전의 공룡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층과 같다. 오년마다 주기적으로 만났더라도 열 번이 안 되는 사이에 우리의 생애는 속절없이 저물어간 것이다. 요즘의 수명년한을 따지고 보면 아직도 황금 같은 인생의 삼 막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공식적인 만남은 이번으로 끝이라고 하니 다소 허탈한 기분도 들고 한번쯤은 상황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들이 졸업했던 69년도 숫자의 조합이 심상치 않듯이 102명이 졸업했던 우리 동기들의 결합력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class의 추종을 불허한다. 모두 균형과 조화에 민감하고 충실하다. 당시 졸업생의 50명은 소위 국내파로 52명은 미국을 향한 해외파로 나누어져 일생을 건 風雲의 길을 따라나섰다.

우리 23회에서는 무려 세 명의 성공적인 醫大학장들을 배출하였고 모교를 비롯한 여러 의대 교수의 배출비율 또한 정상급으로 안다. 최용을 비롯하여 실력과 명성의 입장에서 보아도 전문분야의 최고의 자리를 지켜오며 모교의 명예와 우리 동기의 자부심을 지켜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을 대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 겸허한 마음으로 기록을 유보한다. 고국에서 일생을 살며 국가적 어려움을 넘기고 의학계의 중진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 온 그들의 삶에 축하와 경의를 보내고 싶다. 일회적 선택만이 존재하는 인생의 도정에서 다만 아름다운 끝맺음과 그리움과 변함없는 友情이 있을 뿐이다.

본래 이번 모임은 6월로 예정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10월로 바뀌었다. 공교롭게도 미주동창회 연례행사가 7월에 잡혀 있었고, 우리 동기인 윤효운이 총동창회장을 맡아 주관하고 있어 일정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Detroit에서 있었던 미주동창회는 성대히 격조 있는 행사로 종료되었다. 우리 학년을 대표한 윤효운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한다. 내과교실의 수장 김유영이 연사로 또 총동창회 총무인 김종화가 대표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비행기 소음과 흥분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객석에서 나는 우리들이 함께 共有했던 1963년 봄에서 1969년의 졸업식까지의 고뇌하며 성장했던 6년간의 시간을 돌이켜 보았다.

꽃망울이 터지던 이른 봄, 발판에 서 있던 청량리 예과 건물의 쓸쓸함을 기억한다. 찬바람이 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이층에서 왼편 끝에 위치했던 두 교실. 전국에서 서울대 최고의 cut line을 뚫고 진입한 꿈 많은 수재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황량함이 첫 인상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동봉과 김영일 형이 내 번호 앞뒤로 만나 첫인사를 나누던 기억이 어제 같다. 막 걸리 통을 놓고 한판 벌이던 신입생 환영회가 그 시절의 의례적인 성대한 파티였다. 노래방은 상상할 수도 없던 시절 무작정 취하고 고성방가로 시작

되어 몇몇은 업혀나가는 불상사로 끝을 맺던 순진한 시절이었다. 학급회장 선거가 있었고 이대약대와 첫 미팅이 화신백화점 어딘가에서 있었다. 누군가는 그때 맺어진 천생연분으로 지금까지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

교문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청량리 로터리가 있었다. 결강시간이면 별

사들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학년에 오르며 ECFMG 시험으로 적지 않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 부으며 많은 추억과 일화들을 남기고 있다. 9월 시험을 응시한 경우에는 application form이 국내에 없어 세브란스의 언더우드를 찾아가 20장을 얻어오고 필라델피아 본부에 급전을 띄우는 등 그

서울의대 卒業 40주년기념行事を 마치고

짧은 만남 긴 이별

김 병 오(69, 워싱턴)



때처럼 물러가던 담구장, 그리고 바로 교문 앞에 있었던 조그만 대꽃집. 어느 날인가 비오는 오후에는 실험실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여 낮술에 상다리를 두드리던 일이 기억난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와 Sue Thomson의 Sad Movies 가 한창 유행을 하고 있었다. 마세와 히끼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던 담구 500의 실력, 이성우와 오선웅이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선웅이는 그 후 골프로도 명성을 날리고 있다. 누구인가는 동물학실험실 여교수에게 마음을 주고 가슴앓이를 했다는 풍문도 있었다. 현미경 속의 쫓신벌레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충실해야 할 교양과목은 제쳐놓고 우리는 무한대의 방종과 자유에 익숙해져가고 있었다.

서술 퍼런 군사정권은 학생들의 저항 앞에서 긴급조치와 조기방학등으로 불안한 政情을 이끌어가고 있었고 우리들의 예과 시절은 知的방황과 설익은 청춘사업 등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부르던 예과 교가가 있었다. 당시 유행하던 유정천리의 가사를 바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3학년은 언제 오나'하며 길길이 먼 세월의 고달픔을 노래에 담기도 했다. 가을에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오며 의예과를 마감했다.

本科에 진입한 첫날 orientation 정도로 끝나려니 했던 예상을 깨고 조교를 앞세운 이명복 교수는 골반 뼈를 한 손에 들고 칠판 가득히 라틴어를 적어가고 있었다. 모두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마르며 경악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해의 봄은 잔인했다. 포르말린 냄새에 눈물을 흘리며 Cunningham과 Grant 책을 넘기다 문밖을 나서면 오월의 눈부신 햇살과 그윽한 라일락 향기가 아득한 현기증을 일으켰다. 우리들을 아껴주시던 성기준 선생님의 다변과 미소가 그리웁다. 벤치는 사라지고 古木이 된 당시의 나무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팽시험과 병리 슬라이드 테스트로 결관을 내던 진검 승부의 긴장된 순간들, 생화학의 Krebs cycle, 기교수의 기묘한 immunology 강의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때 좁재시험은 이미 필수과정이 되어 가고 있었다.

임상에 올라오자 권위와 전통을 물씬 풍기는 계단강의실에서 우리들은 햇병아리의사 티를 내며 반원형으로 둘러앉아 Harrison/Cecil 등을 들추고 서투르게 배운 진단학을 실습하고 있었다. 바쁜 중에도 과외활동의 열정은 대단했으며 빠짐없이 매년 수준 높은 행

시절에는 드문 고품격 역할을 한 기억이 생각난다.

卒業을 앞두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우리들은 우이동 산장에서 모닥불을 밝히고 민현기, 한용철, 그리고 이장규 선생님 등과 밤을 새워가며 장래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 강의가 끝난 날 계단강의실에서 의대의 명물이었던 Sunny River 악단을 초청하여 도라지 위스키를 돌려가며 교실이 떠나가는 종강파티를 했다. 전무후무한 일 일 것이다. 이번 모임에서 의학박물관을 둘러보던 중 신영수가 그 강의실을 보존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자백하는 소리가 있었다. 그 때 그 악단의 리더인 정인용과 서량 등이 중심이 되어 뉴욕에서 Jaws 5인조 악단이 만들어져 레지던트의 고달픔과 망향의 서러움을 가슴 시리게 연주하곤 하였다.

드디어 69년 이월, 박대통령이 중앙단상에 앉아있고 날씨만큼 쌀쌀했던 졸업식장에서 대통령상 수상인 심영수를 앞세운 우리들은 주위의 선망의 눈빛을 받으며 식장의 大尾를 장식했다.

기초교실 본관 앞에 모여 우리들은 서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나세진 선생님 등과 어울려 사진촬영을 하며 끝없이 아쉬운 작별을 고했고 있었다. 기억의 창고 속에서 바랜 필름은 여기서 멈춘다.

2009년 10월 16일 오전 10시

그로부터 40년 半이 지난 후 우리는 다시 본관 건물 앞에 모였다. 흑백사진 속에서 걸어 나오는 듯 전혀 낯설지 않은 친구들이 다시 현관에서 강당에서 삼삼오오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가장 엄격한 기율이 강조되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인생의 大長征을 무사히 마친 우리들은 방금 돌아 온 자랑스런 전사들과도 같았다. 회긋한 머리와 다소 풍상에 찌긴 모습일 뿐 예전 옛된 모습 그대로 기쁨에 젖어 반가운 감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 성취와 좌절, 가슴조이는 순간과 환희의 시간들이 이 현장에 있었던가. 오늘 다행히도 현관의 게시판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흑시라도 인생재시 명단이라도 발표하면 어찌됐는가 안도의 숨을 쉰다. 이문을 숨 가쁘게 드나들던 우리의 젊음은 맑고 아름다웠다. 다만 축소되어 보일 뿐 강당은 아직도 엄격한 아버지처럼 돌아온 우리 모두를 조용히 품고 있었다.

학장, 병원장 그리고 박용현 동창회장의 따뜻한 인사말이 있었고 우리 동

기를 대표한 김원동과 변영석의 인사말과 동창회 基金과 기념품 전달식이 있었다. 초일류로 성장하는 의과대학과 병원의 발전상과 미래의 청사진을 조감해보는 시간들이었다. 지금도 서울의 대는 모든 수험생이 가장 선망하는 대학으로 여전히 명성과 품격을 높여가고 있다.

우리 동기의 자랑스런 서울醫大人으로 뽑힌 3인의 이름을 이곳에 당당히 알린다. 국내동문으로는 현재 WHO 아태지역 총장으로 활약하는 신영수, cardiologist로 명성이 높고 우리 期를 대표해 미주 동창회장을 역임한 윤효운과 cardiothoracic surgeon으로 국내와 시카고에서 명성과 업적을 쌓은 조중행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김원동, 김종화, 조중행과 이도영 등이 일여의 거금을 동창회에 기부했다는 쾌거에 경의를 표했다.

학장님의 안내로 함춘분과 교정을 거닐고 주변 부속건물들과 옛 모습을 지키고 있는 시계탑을 둘러보았다. 세월의 無常함에 모두 말없이 회상에 젖었다. 창경궁이 내다보이는 8층 교수식당에서 중식을 하며 오후의 일정을 준비했다. 오래만에 걸어보는 창경궁내부를 둘러보며 비운의 이조역사와 훼손된 근대사를 돌이켜 보았다. 예과이 학년 때인가 있었던 이화여대와와 발벗꽃 축제에 얽힌 에피소드로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버스에 나누어 우리는 청계천 광교에 내려 도시의 명물이 된 이명박 씨의 작품을 완상했다. 공해와 흉물스럽던 고가도로는 씻은 듯 없어졌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에 도시의 행복과 平和가 깃들기를 빌었다. 고국의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에 갈채를 보낸다. 시청, 광화문, 새로 세워진 세종대왕과 광장을 돌아보며 도심관광은 롯데호텔에서 멈추었다. 누구의 발상이었을까. 감동을 선사한 주최 측에 감사한다.

40주년 기념 연회는 오후 6시 롯데호텔에서 성대히 열렸다. 대학시절을 회상하는 Photoshow가 전면에 비치며 우리는 서서히 한때 우리가 공유했던 1960년대로 시침을 돌리고 있었다. 흘러간 세월에는 눈금이 없다. 다만 아득할 뿐이다. 청춘의 꿈과 낭만 그리고 학업의 중압감이 시달리며 고뇌하던 모습들이 면면히 無聲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국내를 대표한 김건상과 미국을 대표한 김운성의 선의의 대결로 펼쳐지는 연회의 진행은 잘 짜여진 모직과 같은 것이어서 모양이 좋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었다. 본격적인 진행은 오늘 이 자리에 혼백으로 참석한 8명의 친구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삶과 죽음의 엷은 벽을 의식하는 순간이었다.

3년여를 준비하느라 고심했다는 김원동의 겸손한 인사말에 모두 감동했고 미국대표인 변영석 형의 유창한 인사말에 크게 고무되었다. 成大의대 학장을 지낸 탕인지 업체장은 유려한 모 두발언과 CD제작에 얽힌 사연을 재미있게 쏟아 놓았다. 김건상은 특유의 유머감과 퀴즈게임으로 흥겨운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주말의 남해여행을 못가는 참석자에게 우선 순서가 주어져 어찌면 끝이 될지도 모른다는 표정을 숨긴 채 환호와 함께 그들의 인사말을 경청했다. 전설적 양반가문의 장손 최강원 형의 후덕한 인사말과 지순한 친구 조맹기의 감격에 찬 표정이 떠오른다. 중후한 인사말인 위정일과 송인경의 혼 혼한 인사말이 이어졌다. 서만길 형이 재혼과 관련된 진지한 소회와 아내사랑을 피력했다. Mrs. 서는 아름다운 노래로 화답을 했다. 텍사스에 푹 떨어져 살아온 이용환 형도 상봉의 감격을 진한 농담으로 대신했다. 수십 년 만에 모습을 나타낸 山 사나이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정한규는 깊은 감회에 젖은 인사말을 했고 오래 모습을 보이지 않던 녹내장의 대가 홍철이 나와 진정성 있는 발언으로 감동을 주었다. 도상철은 집안의 평화와 노후를 위해서는 안사람의 말에 백번 따라야한다는 모범적인 처세술을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

주연감들이인 업규등을 비롯한 김창남, 최종일, 서량, 김중권, 임안무, 이충호 등과 늘 참석하던 오하이오의 신영찬, 송용재, 이치훈, 김정환, 아틀란타의 지승남, 시카고의 김운태, 오병진, 양재관, LA의 김홍서, 김재욱 그리고 박장부 등이 빠져 아쉽고 섭섭했다. 홍일점 이민자도 빠질 수 없는 자리였건만 못내 아쉽고 그렇다. 김일환 형과 전병완 그리고 정진두의 소식이 안타깝게도 두절된 상태였다. 그리고 보니 국내에서도 꼭 만나고 싶었던 많은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다. 나의 테이블에 앉아 끝없이 즐거운 comment를 날리던 송인경 부부, 당일 도착했던 세인트 루이스의 전덕성 부부, 원동이 그리고 한결같은 심영수부부에게 그 날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감사드린다. 술에 취해 공간을 휘저으며 상봉의 기쁨을 나누던 영광원의 돌출도 지금은 그림기만 하다. 겸손한 최윤식은 대통령의 스케줄을 바꿀 수 있는 주치의가 되어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시간 내내 100여명의 우리는 끝없이 즐거웠고 다정했다. 미쳐 제대로 인사를 못하고 헤어진 위정일, 유건, 박찬일과 엄용의 등이 못내 아쉬움을 더한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내색할 수 없는 마음 저 바닥의 우수를 그리고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을 말이다.

10월 17일 토요일

아침 일찍 버스 3대에 분승한 66명의 청춘남녀들은 롯데호텔을 떠나 남원을 첫 정착지로 정하고 변화한 도심지를 벗어나고 있었다. 어느 사이에 강북의 도심지가 이토록 화려하고 무거운 도시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인가. 미국의 심장부를 누비며 살아 온 우리 눈에도 당당하게 보이는 고국의 변화가 자랑스러웠다. 한편 아파트 공화국의 풍조와 획일화가 주는 부정적 느낌도 피할 수 없었다. 기억을 지워버리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중도에서 몇 명을 다시 태우고 버스는 이름 모르는 남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특유의 높은 산악이 멀리 병풍처럼 둘러 서 있고 얇은 구름과 눈발이 차창 밖으로 지나간다. 예전에 보던 황금빛 가을 들녘이 눈앞에 다가선다. 얼마만큼 떨어져 살았으면 이처럼 이국의 풍경으로 느껴진단 말인가. 안내양은 계속 각종의 간식을 제공하고 풍족하게 마련한 포도주와 각종의 주류를 공개하며 마음껏 들기를 권한다. 모두가 주최 측의 배려로 이루어진 완벽한 준비와 성의의 결과이다. 휴게소 화장실文化의 변화 또한 괄목할 만하다.

우리 차에서는 거나하게 술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나의 분신인 靑空이 마이크를 장악하고 달인 급의 농담을 제공했다.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진지한 질문에 감기로 목이 쉰 유영이는 '삶은 계란' 이라고 응수해 폭소를 자아냈다. 어느 행사인의 외침에서 대오를 했다고 한다. 그의 부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곧이어 마이크에 끌린 듯 효윤이가 등장하여 미국식 초코로 분위기를 계속 잡아주었다. 이종성형은 고학으로 대학이 늦어졌던 옛날일을 얘기하며 감회에 젖었다. 안병일도 골프 초코로 거들며 내년 봄 LA 동창회 참석을 홍보했다.

다른 버스의 지루한 여행과 달리 처음부터 웃고 즐기던 우리는 남원에 도착하자 곧바로 명물 추어탕을 먹으러 도림식당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유행하는 막걸리로 반주를 해가며 알코올기운을 계속 유지해갔다. 섬여처럼 잘 가

꾸어진 광한루를 둘러보며 유년시절 보았던 조미령과 이민이 주연한 춘향전 영화를 떠올렸다.

지리산 노고단에 도착하니 세차게 부는 바람과 시간의 지체로 산행을 포기하고 서둘러 구례 화엄사로 향했다. 땅거미가 지는 무렵 몇몇 동기들은 여장을 풀자마자 신라 진흥왕 544년에 창건했다는 천년고찰을 보러 서둘러 올라갔다. 우리도 천양곡부부와 함께 올랐다. 대웅전 보다 더 크고 고색창연한 각황전을 바라보는 마음이 평화로웠다. 최종일이 一生을 두고 정진하는 화엄세계는 어떤 것일까. 저토록 고상한 정신과 단아한 기품을 구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오랜 역사 속에서 험난한 세월과 치욕을 겪어야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저녁에 있었던 banquet는 또 한 번의 대연회였다. 다소 격이 다르지만 전문적인 사회자는 역시 달랐다. 각 테이블마다 경쟁하듯이 드높이 외쳤던 '위하여' 함성은 화엄사 계곡을 울리며 지금도 영원히 우주공간을 날아가고 있을 것이다. 숨어 있던 열정과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그날 저녁, 강변가요제 입상자였다는 Mrs. 임용규의 트로트곡과 Mrs. 이승규의 열창이 단연 돋보였다. 그들 말고도 만민지 않은 많은 프로급들이 줄을 이어 있었다. 여인들의 흥이 점점 과열되어 가고 있었다. 아틀란타에서 온 최종진은 화끈한 부인의 내조로 시선을 모았다. 김원동은 춤을 추고 의심스럽게 부인에게 깊숙한 인사를 한다. 화색이 좋은 차창용이 노래마저 잘 불러 다른 사람들을 무색하게 했다. 그 날 밤 흥분과 환희는 화엄사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를 따라 멀리 흘러갔다.

이 세상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無常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할 뿐이다.

10월 18일 일요일

소설 '토지'의 무대인 평사리 최 참판 데울 찾아 우리는 南道の 고요와 낭만이 흐르는 섬진강변을 따라 한나절을 달렸다. 河洞 빗꽃 십리길로 유명한 마을도 지났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멀리 강변 모래가 반짝이고 강물은 완만히 산곡을 돌아가고 있었다. 강줄기를 따라가다 길을 잃어버리고 싶은 섬진강. 평사리 언덕 중턱에 널찍한 기와집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르는 길가에 감나무가 풍성히 열매를 달고 그림처럼 서 있다. 우리가 꿈속에서 그리던 가을의 모습이었다. 위상톤의 名醫들인 박수웅과 도상철 부부와 한가로이 거닐었다. 이런 고향의 정취에 묻혀 여생을 보내면 왜 안되는 것일까. 우리들은 최참판댁 古家를 전세낸 듯 신발을 벗고 올라가 멀리 보이는 가을 들녘을 끝없이 감상했다. 얇은 담위로 최용과 최환의 머리가 숨박꼭질하는 장면이 기억난다. 누군가는 부인을 대동하고 장독대에 올라 사진을 찍고 있었다. 누가 대한민국 의학계의 거봉들이라고 짐작이나 하겠는가. 치열하고 교과서 같은 삶을 살아온 그들에게 이제 노년의 평화와 안식이 있을 것이다.

평사리를 떠나 남해를 향해 버스는 달렸다. 보리암에 올라 호수같이 잔잔한 한려수도를 내려다 보았다. 남해 대교를 떠처럼 열을 지어 걸으며 청사에 빛나는 도하작전을 무사히 마쳤다. 누군가 모자하나를 날려보냈다.

금호 충무 마리나 리조트에 여장을 풀은 우리들은 해원이라는 한정식집에서 회정식을 마음껏 먹으며 우정의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었다. 미주동포들이 사온 위스키 병이 넘나들며 약간 과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사이 이미 過飮의 증상들이 효윤이와 신영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도영과 한우수의 자제 호소도 소용없었다. 효윤이는 아예 그 자리에서 크게 망가지며 대취해

버려 마누라 신세를 지고 영수는 부녀자들에게 달려가 너그러운 향응을 베풀었다는 속보가 들어왔다.

다시 우정의 열기는 노래방으로 옮겨져 즐거운 잔치는 계속되었다. 순서가 무너지고 감자가 마이크를 놓치않는 상황이 오자 윤성이 UN軍처럼 계엄을 선포하고 공평과 순서가 지켜지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수줍은 약자에게 기회를 주자 많은 무명의 가수들이 탄생하며 흥미가 한결 더해 졌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우리들의 영부인들이 연출한 뜻밖의 happening이었다. 모두 무대에 나가 Edelweiss에 맞추어 고상한 춤사위로 향응을 베푼 후 Mrs. 김윤성이 대표로 나와 우리들의 졸업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message를 전했다. 순간 감동과 전율이 느껴지며 동고동락한 그들에게 우리를 역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안타깝게도 이양우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이미 성급하게 부른 다음에 생긴 일이었다.

말을 안하려고 했지만 이번 모임에서 느낀 점의 하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마누라 앞에서 공처가를 넘어 부르르 진동하는 진처가들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부인들에게 다소곳해지고 눈을 바로 못 뜨는 경향이 보편적으로 있었다. 물론 내분비 변화 등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유리해지는 가내의 위치, 경제권의 장악, 보복 심리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폐차가 되어가는 우리의 처지 탓이라고 볼 수 있다. 모르는 사이 여결이 되어가는 아내에게 치이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다. 두 눈으로 보았지만 노래방에서 격정에 몸을 흔드는 현란함이라든가 마이크를 향해 달려가는 속도만 보아도 이미 우리들은 속으로 진동하기에 충분했다. 자존심이 상해 무의식으로 처리할 뿐이다. 말 좀 하려면 노숙자 시리즈를 들어 우리를 자숙시킨다. 어께 너머로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아름다운 부인들이 펼치는 조크의 수위는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한다. 이번에도 '행교~'로 끝나는 유명작품은 두고두고 우리를 즐겁게 했다. 자다가도 웃었다. 처음 능숙하게 발표한 그 부인은 아주 정숙하고

전덕성, 임용규 부부를 만나 서로 미소지었다.

박건영 등 마이트 mania는 늦게 다시 모여 관을 벌리며 예전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 번 몰입하면 인사불성이 되어 주위의 소란과 절연된다.

10월 20일 화요일

다음날 우리들은 끝날 의 일정에 들어갔다. 불멸의 영웅 이순신장군의 한산섬 유적지를 향해 발길을 옮겼다. 임진왜란중 한산대첩의 현장인 제승당을 보러가는 길은 깨끗하고 평화로워 기분이 좋았다. 오후에 진주성을 방문하고 논개의 굳은 절개를 칭송하며 축서루에 올랐다. 중행이가 변영로의 유명한 시 한 구절을 읊는다. '아!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그의 다방면의 소양이 비범하다. 예과시절 방준재를 따라 왔던 기억이 어렴풋이 생각났다. 갑을가든에서 진주비빔밥을 들고 부산히 떠날 무렵 묘령의 중년여인이 답례를 하며 미색을 띄우고 있었다. 아나나 다를까 윤성이가 다가와 그 여인과 사전을 찍기를 간청하고 있었다. 어떻게 민감한 부인을 앞에 두고 그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 친구부인의 마음을 헤아려 나도 끼어들어 함께 사진을 찍고 후환이 없도록 했다. (성문 앞에서 우리는 대전으로 떠나는 동서 시간인 태운과 건영부부와 고향인 삼천포로 빠지는 수웅부부에게 作別을 고하며 한참 동안 손을 흔들었다. 핀 꽃은 지고 만나면 헤어지는 법이다.)

드디어 발길이 서울로 향했다. 성남시 청계 산장을 찾아 퇴근길의 정체를 거슬러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목적지에 닿았다. 가로등이 켜진 서울의 외곽 골목길이 낯설었다. Mrs. 신현정이 애써 마련한 선물 백들이 좌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풍성한 음식과 넘치는 술잔을 앞에 놓고 우리는 아무 내색도 없이 못 다한 옛이야기와 덕담을 나누었다. 각자 모두가 소감과 인사말을 나누며 어느새 작별의 시간을 예감하는 듯 暴笑뒤에 목소리가 잠기고 있었다. 황혼이별은 커녕 황혼의 김새도 없었고 별거숭이 청춘만이 살아 있더라는 나의 소감에 모두 공감을 했다. 절대 공허하지 않게 우리는 再會를 약속하



평사리 최 참판댁 앞에서

아름답기도 하다.

우리들은 간간이 맑은 정신이 들면 한국의학계의 현황과, 의료수가, 정치와 사회, 문화, 그리고 미국의 건강보험개혁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아울러 자연히 화제에 오르는 은퇴의 시기와 계획과 꿈을 의논하며 자신의 입장들을 비추어 보았다.

10월 19일 월요일

다음날 조식을 마치고 거제도도 향해 발길을 돌렸다. 해금강과 外島를 보러 유람선을 탔다. 한껏 품을 잡은 선장의 일거수 일동이 기억에 남는다. 연예인 복장에 흰 장갑과 검은 안경을 낀 그는 아마도 통영의 여러 여자들을 울렸음에 틀림없다. 외도는 최근에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한다.

케이볼카 탑승을 하러 갔으나 바람이 불기 시작해 포기하고 몇 군데를 떠돌이처럼 돌다가 석양이 질 무렵 충무시장에 철새처럼 내려앉았다. 우리에게는 그것도 오랜만에 보는 진기한 풍경이었다. 군것질을 하며 돌아다니다

며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럴 때 문단의 詩人 서량이 있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돌아가는 길이 허전했다.

말없이 정성을 다하여 기념행사를 마련한 김원동과 변영석 그리고 고국의 동기들께 최상의 찬사와 感謝를 보낸다. 여행 다음날 8명의 골프광들은 피곤을 모르고 종화가 마련한 이천골프장에서 백구의 향연을 가졌다 한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앞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이고 때 아닌 초겨울의 삭풍이 불어왔다. 우리들 인생에서 어쩌면 마지막 타오르는 젊음과 우정의 불꽃은 아니었는지 늦가을에 잠시 찾아왔다 사라진다는 Indian summer를 살다 온 것 같다. 서울醫大 출신의 명성과 후광은 우리의 일생을 행복하게 했다. 동기들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불러볼 수 있었던 기회를 고맙게 생각한다. 편안한 노후, 건강한 老年 그리고 변치 않는 우정을 기원한다.

2009년 12월 拙稿를 띄우며



정신물리학

이원택(71, 남가주)

제1과 기 와 색(energy and light)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만사가 물리적인 힘의 과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외부나 내부의 자극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흥분할 때 신경전달물질이라는 화학물질이 활성화된다는 물리적 에너지로 바뀐다고 배웠는데 이 물리적 에너지가 어떻게 정신적 에너지로 바뀌느냐에 대해서는 석연치가 않다. 내노라하는 물리학자들도 여기까지 와서는 두 손을 들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표현상의 간격(gap)이 있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창조설을 믿는 많은 물리학자들은 그것은 신성 불가침한 신의 영역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원자란 원래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다는 모든 물질의 최소단위로서, 보통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점도 100 billion 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니 얼마나 작은가 짐작이 가는가(?) 그런데 이 원자도 자세히 보면 핵,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졌고 그 주위를 전자가 뱅글뱅글 돌면서 전기를 일으킨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전자가 뛰어나면서 일으키는 에너지를 광자(photon) 또는 양자(量子, quantum)라고 하는데 그 정체는 빛이다. 요즘은 빛은 quark라고 하는 소립자와 그주위를 진동하는 파장으로 구성된 아주 가느다란 실의 연속이라는 끈론학설(string theory)이 관을 치는 모양이나 글쓴이의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각설하기로 하자.

이와같은 끈론학설에서 나오는 끈의 굵기는 10-34 내지는 10-35m(소숫점 이하로 0이 34개 내지 35개가 찍힌 미터,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주위를 파장(wave)이 연속적으로 진동(vibration)해 나가는 힘이 빛이라고 한다. 옛날 중국사람들은 힘을 기(氣)라 했고 빛을 색(色)이라고 했는데 색은 여성, 힘은 남성을 상징하므로 복잡해 보이는 현대 물리학의 원리도 따지고 보면 단순한 음양의 법칙에서 나왔나니 너무 기 죽지 말고 꾸준히 색을 추구해 볼 일이다.

제2과 의식론

우리가 정신의학을 논할 때 '의식' 또는 '자각'으로 번역되는 consciousness를 빼곤 말이 안되는데, 섬망이라는 것은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고 프로이트(Sigmund Freud) 아저씨는 무의식적(unconscious)이라는 말을 밥 먹듯 쓰고 다니셨다.

흔히 사람들이 깨어날 때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때는 수억 개의 뇌세포에서 불이 번쩍번쩍할 것이다. 혹은 어둠침침한 해골 내에 무슨 얼어 죽을 빛이 있느냐고 하겠으나 빛 중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적외선, 자외선, X-ray, 감마선, 레이저, 뮤온(muon)이라는 우주선 등등 요상한 빛들도 많이 있다.

정신해부학에서 우리의 각성을 주도하는 기관이 망상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는 이 망상체가 활성화되면서 대뇌나 소뇌에 신호를 보내 생각하고 움직일 준비를 시킨다. 동물이 잠을 잘 때는 의식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의식을 되찾아 주는 것은 주기적인 생리현상(circadian

rhythm)같은 내부자극이나 자명종 같은 외부자극이다. 흔히 남다른 자극을 받았을 때 골때린다 라고 하는데 곤히 자는 꼴을 커다란 소리로 한 번 때려 보자. 청각세포가 자극받아 곧바로 망상체에 있는 각성세포를 두들겨 깨우는데 이것은 마치 캄캄한 오밤중에 전등불 스위치를 울려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즉 의식이 번쩍 들어온 것이다.

태초에 '빛과 소금'이 있었다. 그리고 '말씀'이 있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가장 각광을 받는 분야가 각종 광선과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인 쿼크(quark)라는 것인데, 이들을 이용한 인간의 지혜는 창조주도 놀라서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또는 측은해서 혀를 차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리하여 창조주께서 목소리를 높혀 중생을 구제하시는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공명(resonance)이라고 한다. 이것은 각성세포가 깨어 나고나서 그 파장이 대뇌 소뇌 척추를 거쳐 온몸으로 전파 되는데 이와같이 우리의 의식은 소금과 빛과 말씀이 합쳐져야 제기능을 할수가 있다.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은 뇌의 어떤부위에 dopamine이 너무 많아서, 우울증은 serotonin이나 norepinephrine의 생산이 끊어져서, 그리고 불안증은 GABA가 모자라서 온다고 했으나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 자체보다도 그것들이 어떤방향으로 투사(project)하느냐 하는 신경회로(neural pathway)가 더 중요한것으로 되어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아마도 이와같은 신경회로들이 서로 열리고 설켜서 어떤것은 서로 상승작용을하고 어떤것은 서로 억제작용을 하는가하는 상대성을 구명해 내는 일일 것이다.

일반 물리학에서도 그동안 일차원적인 에너지(선, 빛)와 이차원적인 화학물질(점, 소금)은 많이 연구가 되었으나 삼차원적인 세계 '공명'(공간, 말씀)에 대한 연구는 초음파나 MRI 등 아직 기초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저자는 늙어서 못하지만 노벨상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분야를 열심히 연구해 볼 일이다.

제3과 서사시

글쓴이는 서머타임(summer time)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 정확히 자동으로 바뀌는 휴대폰을 보고는 의아해 했는데 인공위성에서 무슨 광선을 쏘아대서 시간을 바꾸는 것이란다. 그리고 글쓴이가 매일 아침 커피 물을 끓이는 전자레인지(microwave)며 신장결석을 수술 없이 레이저를 쏘아서 꺼내 주는 것 등 '빛'이 할 수 있는 일이 신비하기 그지없으며 '소금'의 원료인 쿼크(quark)를 이용해서 핵발전, 핵무기 등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원리가 고대로 뇌나 신경세포에도 적용되는데, 뇌에는 수백억 개의 발전소(뇌세포)와 수천억 개의 전선줄(수상돌기와 축삭돌기), 수조의 전자회로, 수경의 quark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결국은 뇌를 움직이는 것은 신경전달물질이 아니라 이와 같은 빛들인데 아인슈타인은 세상에서 빛만큼 빠른 것은 없다고 했다(아무나 다 아는 것도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아주 품이 나는 것이다). 또한 정신생리학의 작동전위나 장기간 상승작용에서 보듯이 이 빛들

이 서로서로를 일깨우고 부추겨서 사람의 정신이 번쩍 드는데, 상대적으로 신경세포의 숫자가 적은 어린이에서는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어른보다 더 길린다.

그러면 사람이 각성(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했다고 해서 다 conscious하게 되는가. 이것은 consciousness라는 말이 의식이라는 말 외에 자아나 자각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성을 하고 나서 자아를 찾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자아란 말은 의식자가 상대방이나 주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한다는 말인데, 하등동물이나 어린이는 이 자아가 덜 발달돼 있고 어른들도 잠에서 깨어나서도 한동안은 얼떨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아는 유전자에 의해 원래부터 타고나는 것도 있고 또 나중에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 축적되기도 하는데, 이 자아야 말로 그 사람이(또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라는 개인성(individuality)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제4과 서정시

그렇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의학이 극도로 발달해서 뇌의 이식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자. 왕자와 그의 종이 잠을 자는 동안에 그 두 사람의 뇌를 감쪽같이 바꿔 놓았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좀 혼란은 있겠지만 종이 왕자의 역할을 하고 왕자는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정신의학을 좀 파고 들어갈 때 설명하기 힘든 경우가, 같은 분열증 환자라도 어떤 이는 신(神)을 보고 어떤 이는 악마를 보고, 환청이 있는 경우에도 어떤 이는 성경구절이 들리고 어떤 이는 유행곡 가사가 들린다. 만약에 한 사람의 양쪽 귀에 수화기를 꽂아 놓고 왼쪽 귀에는 성경구절을 읽어주고 오른쪽 귀에는 유행가를 틀어 주면서 한 시간 후에 성경에 관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 친구 귀에는 유행가 가사는 전혀 안 들리고 성경구절만 왕왕대면서 들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람이 어디에 더 관심이 있고 얼마나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신경회로(neural pathway)가 가늘게도 되고 두텁게도 되기 때문이다. 즉 같은 자극이 오더라도 그것이 흘러 가는 방향은 미리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많은 노력을 해서 다른 곳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시와 산문이 다른점이 무엇인가, 특히 서사시와 서정시가 다른점은 글의 해석이 객관적인 것에서 점점 주관적으로 변해 간다는것 일 것이다. 개개인의 경우라도 상황이나 상

대방에 따라 자신의 처지와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부터 "아"할때 다르고 "어"할때 다르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많은 정신과 질환에서 이 자아의식(self-consciousness)이 발달이 되지 않았거나 작동을 안하거나 혼란에 빠져 있는 경우를 본다.

제5과 정서론

1997년에 IBM 회사에서 1초안에 200만개의 상황을 판단하는 슈퍼컴퓨터 'Deep Blue'를 개발한 후 당시 서양장기의 세계 챔피언에게 도전하여 이겨서 이 소식을 매스컴들은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보다 낫다고 떠벌인 적이 있는데 낫기는 뭘 깨끗덩어리가 낫겠는가. 컴퓨터한테 연애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 제대로 하나. 애인이 "참 달도 밝지요?" 할 때 "그럼 보름달이 밝지 않으면 어쩔 것이어?" 또 "그만 불끄고 잡시다." 할 때 "31초만 있으면 자동으로 나갈 것이구마~" 한다면 연애는 지랄, 무슨 연애를 한다구.

현대과학이 발전하는 추세로 봐서 컴퓨터가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을 이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텐데 글쓴이 생각으로는 세상 모든 생물의 근원이 되는 물을 이용하는 것은 요원할 것이라고 본다. 즉 컴퓨터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는 뇌에서는 물이 빛을 보호해 주지만 컴퓨터에서는 물이 빛을 잡아먹기 때문이다(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딱딱한 여자보다 밑에 물이 많은 여자가 더 좋은 것이어~).

내분비 학자들 말처럼 뇌는 호르몬 덩어리인데 이와 같은 물질을 무슨 수로 적재적소에 분포하겠는가. 자연 발생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호르몬이란 것이 결국은 정(emotion)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컴퓨터는 생명도 없고 정도 없는 무정한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욕칠정(五慾七情)으로 뭉쳐진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빛은 대뇌 피질이고 소금은 변연계이다. 빛은 타인을 인도하나 소금은 자기가 녹아야 한다. 빛은 진리이고 소금은 희생이다. 빛은 밝고 빨라야 하고 소금은 짜고 은근해야 제맛이 난다. 즉 컴퓨터로는 산문이나 잘해야 서사시까지는 쓸 수 있겠으나 결코 서정시는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주로 변연계가 주관하는 정과 대뇌 피질이 주관하는 지식이 합쳐진 것이 정신(mind)이라 할진데,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정신이 나갔다는니 정신이 돌았다고 할 때 정신과적 질환 즉 정신이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내용: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가급적 1면이상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농담골목'에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양하는 원고: (1) 종교적인 내용

(2)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d 혹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紙上法醫



어머니의 심정

노용면(55, 대뉴욕)

불붙은 자동차의 트렁크 속에서 심하게 탄 남자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사망원인은 총상이었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를 트렁크 속에 넣고 차에 불을 질러 범위를 감추려 한 것이 분명하였다. 이 뉴스가 알려지자, 한 부인이 곧 법의관실에 나타나 그 유해가 바로 자기 아들인 빈센트(Vincent)의 시체라고 주장하였다. 29세인 빈센트가 실종되었음을 이미 경찰에 보고한 바 있는 그녀는 아들 소식을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누군가가 빈센트를 살해했다고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과 또 하나의 아들도 이미 강패들 손에 의해 살해된 바 있었고, 남편이 실해되기 전에 말하기를 "저놈들이 우리 가족을 전멸하려 한다." 라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시체가 하도 타서 신원확인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그것이 백인 남자이고, 긴뺨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된 바에 의하면 그의 키가 5'8"(170cm)정도라고 하는 사실은 알 수가 있었다. 빈센트의 키는 5'9"에서 5'10"사이라고 했다.

신원 확인은 어려웠지만, 내가 그 유해에서 확신을 가진 것은 그의 나이였다. 나는 유해의 나이가 스물아홉은 아니었고, 그보다 훨씬 어린 나이인 스무 살 이전이라고 믿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골반 뼈를 X선 검사한 결과에 의해서였다. 바깥쪽 테두리뼈(iliac crest)가 안쪽에 있는 골반 덩어리 뼈와 아직 완전히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뼈들 대부분이

아주 연한데, 곧 여러 장소에서 골화중심(ossification center)이라고 하는 석회화 핵들이 생기고, 이들이 자라면서 서로 합쳐서 어른의 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골화중심들이 자라고 합치는 순서를 보고 사람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골반의 경우에 바깥쪽 테두리는 사춘기 이후에 생기며, 그것이 20살에서 25살 사이에 안쪽 큰 뼈와 합친다.

나는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부인더라, 그 아들이 최근에 찍은 X선 필름이 있으면 모두 갖고 오라고 했다. 다행히 그녀가 X선 필름 몇 장을 갖고 왔는데, 그중에는 최근에 찍은 골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의 골반 뼈에서 바깥테두리뼈와 속뼈가 이미 완전히 합쳐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스물아홉이라는 나이에 합당한 소견이었다.

내가 그 부인에게 문제의 유해는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유해를 인수받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나섰다. 끝내 가족이 다니는 천주교 성당의 신부, 시 의회 의원, 주 의회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그들에게 정중히 설명을 해 주었으나, 그들이 내가 부모의 슬픔을 알지 못하는 관료주의자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른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혈액형과 실종된 아들의 혈액형을 기록한 서류를 갖고 오라고 일렀다. 내가 그 숫덩이가 된 유해의 혈액형을 알고 있었고, 최근에 사망한 그녀의 남편의 혈액형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몇 달이 지나 기다렸던 혈액형들이 실린 기록을 보내 왔는데, 그것으로 그 문제의 유해가 그녀의 아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랑하던 가족이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믿은 사람은 없다. 특히 어머니들은 그렇다. 여기에 두 사례를 소개한다.

미칠 것 같은 망상 속에 있던 스텐리(Stanley)가,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맨하탄으로 가는 나룻배(페리보트)에서 바닷물로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그때가 출근시간이었는데, 많은 승객들이 그가 투신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만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찾아와 울면서 하는 말이 "스텐리는 언제나 물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물에 뛰어 들 수 있었겠어요? 만약 내 아들이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다른 방법을 취했을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그의 죽음을 자살이라 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찰조사를 다시 부탁했으나, 그들의 답은 똑 같았다. 이제 가족들이라곤 아무도 없는 스텐리의 어머니는 근 5년 동안 우리 사무실에 들락하면서, 직원들에게 아들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불쌍한 어머니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들을 위한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른다.

브라이언트(Bryant)는 퀸즈 교외를 달리는 기차에 치어 죽었다. 경찰보고서에 의하면, 기차에 치이기 전에 그는 친구 한 사람과 함께 철로 위에 앉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에 기차가 다가왔다. 친구는 급히 철로에서 나왔는데, 브라이언트는 계속 그곳에 앉아 있었다. 친구가 기차가 온다고 고함을 질렀으

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기차에 치어 사망하였다. 그 친구에 의하면 기차가 나타나기 전에 브라이언트가 자기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것저것 말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가 자살을 하려고 한 줄은 전혀 몰랐다고 되풀이 했다. 시체 부검에서 혈중 알콜양은 별로 높지 않았고 탄약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법의관실이 정한 자살이라는 결론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녀가 편지를 여러 장 보내면서 사인을 자살이 아닌 것으로 해 달라고 했다. 내가 경찰에 연락하여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들의 보고서에는 바른 바가 없었다. 브라이언트의 어머니는 경찰에도 계속 불만을 표시했다. 그런 후 한 이 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더니, 그녀가 신문 기사 두 장을 잘라 보내왔다. 자기 아들이 죽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기차에 치인 사건이 돌아나 있었다고 하는 기사였다. 그러면서 그 자리는 사고가 나기 쉬운 장소인데도 당국이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가지는 교통부를 걸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돈을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님을 안다. 이제 누군가를 탓할 수 있으니, 자기 잘못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일 것이다.

References: 1. Yong-Myun Rho and Donald Hoffman: The Investigation of Fatal Fires.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55:1-8 (No. 9), 1996 2. Yong-Myun Rho: Murder or Suicide.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78:965-967, 1978. 3. Yong-Myun Rho: Medical Examiner's Authority. Challenges to Perform Autopsies.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81:1687-1688, 1981.

무덤 속 어둠에 하이안 축루(燭淚)가 빛나리. 향기로운 주검의 내도 풍기리 (朴斗鎭(1939)의 墓地頌에서) 삶을 정의한 것과 수식한 것도 수백 가지고 또한 죽음을 정의한 것과 죽음을 수식한 것도 수백 가지다. 죽음을 저주하기도 하고, 두려워 하기도하고, 찬양까지도 한다. 죽음을 공부하기도 하고(Tanatology) 죽는 사람의 감정도 공부한다(Elisabeth Kubler-Ross).

다만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진실이다. 오는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출생은 생의 시작이요 죽음은 그 막을 내리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진료의뢰를 받은 중 닥터 카터가 의뢰한 환자의 경우는 보통 경우와 달랐다. 환자는 48세의 부인으로서 유방암 말기로 그녀의 생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다. 난 어떻게 도우면 좋겠는가고 물었더니 큰 대학병원에서는 모든 말기 암 환자를 카운슬링 하더라도 막연히 말하면서도 닥터 카터는 그 것이 옳은 것으로 여긴다고 했다. 나도 그런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늘 궁금했다. 어떤 의학적 심리학적 철학적 또는 종교적 생각을 기초로 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카운슬링을 하는지는 몰라도 나에게 준비된 것이 없었다. 우선 그 환자를 만나 보기로 했다. 기독교 관습으로 마지막 고해성사라면 몰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정신과 의사가 도울 것이 무엇인지 막연했다.

이 부인이 암의 말기 환자라고 하지만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얼굴에 온화하며 수려한 표정으로서 나를 맞으면서 인사를 하는 미소 또한 따뜻하였다. 나를 소개했다. 그녀는 곧 "네, 압니다, 제가 닥터 카터에게

부탁할걸요."

"아, 그러세요?" "저의 병명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죽는 마당에 정신치료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래 하는 이 현실에서 내 맘이 부서지지 않았으면 하여 선생님이 지켜주 시면 든든할 것 같아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결혼도 하고 충실한 남편과 12살

짜리, 10살짜리 착한 사내아이들 그리고 우리 귀여운 막내 다섯 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도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내가 떠나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기 전에 그녀는 자세히 자기의 배경, 병력을 얘기 하여 준다. 공부도 하고 자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각적으로 느꼈다.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어처구니없고 어리석은 질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한마디 한다고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

"그냥 지켜만 주세요. 후회 없이 가고 싶어요. 죽음도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나는 이것을 혼자 감당하기가 무섭고 자신이 없어요. 누가 지켜주어야 안심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생면 부지의 동양인 정신과 의사에게

초면에 신뢰감을 갖는 것 또한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아닐까?

다음날 오후에 그녀를 방문 했을 때 그녀는 정겨운 미소로 나를 받기면서 어제 밤에는 잠도 잘 잤고 좋은 꿈도 꾸었다고 했다. 오늘 저녁에는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하면서 나의

허락을 얻었으면 했다.

나는 쾌히 승낙하였다. 자기의 경력을 조금 더

이야기 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이 자기가 화학 공학자의 직업으로 성공하는 것 보다 훨씬 행복스러웠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아침 회진 전에 잠시 그녀의 병실을 방문 하였더니, 여니 때와 같이 반가이 맞아주었다. 약간 초췌한 것 같아 나를 슬프게 했다. 회진이 시작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몇 분이 지나 회진 중에 한 간호사가 그 환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하며 환자를 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나는 회진무리에서 빠져나와 그녀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이 나를 반가이 맞으며 아주 생기 있는 말로 어제저녁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 해주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다고 했다. 막내가 하도 가여워서 눈물을 참느라 애를 썼다고 하며 그녀는 막내가 한 말을 몇 번 씩이나 얘기했다. "엄마,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지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지."

"사내 녀석들은 성숙했어요. 울음을 참느라고 애쓰는 것을 보고, 나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아 그 녀석들을 양쪽에 꼭 껴안아줘 실컷 울게 했어요. 흐느낌이 잔잔해질 때 그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잘 알고 아빠에게 보내 주며 남편을 쳐다보았지요.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지요. 그는 그의 독특한 따뜻한 미소로서 나에게 무언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당신 염려하지 말고 잘 가요, 내가 이 아이들을 당신이 자랑스럽도록 키우고 돌보겠소. 여보, 잘 가요. 또 만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오.' 라고 하는 것이 역역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녀는 행복하고 평화스럽게만 보였다.

그녀의 병실을 나온 지 몇 분도 안되어 간호사가 또 다가 와서 그 환자가 이상하다고 하였다. 나는 직각 그녀가 죽음으로 돌입하는 몽환상태에서 환각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곧 그녀의 곁으로 갔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자기도 내손을 반사적으로 잡았다.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내 귀를 그녀의 입에 바싹대어 멀어져가는 숨소리에서 마치 '고마워요.' 하는 말이 예쁜 꽃잎이 잔잔히 흐르는 맑은 시내를 떠내려가는 것 같았다. 간호사가 내게 무엇을 물어오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녀가 남긴 그 아름다운 끝을 간직하기 위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병원 뒤뜰로 갔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 맘속에 새겨주었다. 그녀는 나에게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서전을 선사 했다. 다만 노랗게 물든 단풍잎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살며시 스쳐간다.

"주님, 저 아름다운 영혼을 반겨주실 거죠?"

아름다운 낙엽처럼



강창욱(61, 메릴랜드)

부탁할걸요."

Green Project Corner

예일대학교 류마토로지내과에서의 나의 경험

왜 미국으로 일렉티브를 갈 생각을 하였나?

아버지의 직업이 외교관이셔서 나는 어려서부터 여러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맨날 이사를 해서 내가 고생한 줄로만 알고 특혜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다 커서 되돌아와 보니 한국에서만 학교를 다녔다면 얻지 못했을 것들을 참 많이 배운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하는 것은 영어이다. 10년 여 가량을 외국에서 지내다 보니 영어를 원어민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정도는 익힐 수 있었다. 따라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따라서 미국 병원에 가서 실습을 도는 데 대한 거부감도 없었고 오히려 한번 도전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미국 일렉티브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과 2학년 겨울 방학 당시 아버지께서 뉴욕에 근무하고 계셔서 나는 방학을 하자마자 뉴욕으로 가게 되었다. 한달 반이란 시간을 그냥 뉴욕에서 노는것은 낭비 같아서 이모부의 친구이시자 Westchester Medical Center Oncology 전후근 교수님에게 부탁하여 한 달간 observationship 을 경험하였다. 당시 2학년 내과 블록 강의가 막 끝난 후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미국에서의 한 달간은 참 흥미로웠다. 같은 팀의 인도의대 출신 펠로우와 항상 같이 다니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펠로우가 곧바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곤 하여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다. 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 교수들이 한국에서 온 학생이라고 특별히 신경을 써주어 하나라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였다.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한국의 의대생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었다. 그때 4학년 일렉티브 기간이 되면 꼭 미국에서 임상실습을 돌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

본과 1학년 때부터 심장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4학년 일렉티브 때에는 꼭 순환기내과에서 실습을 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3학년 여름 방학 때에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stem cell research center 에서 한 달간 학생 연구원 생활을 하며 순환기내과에 대한 여러 경험을 쌓으며 노력하였다. 4학년이 되어서 일렉티브를 신청하는 기간이 되었을 때 나는 미국 여러 대학에 순환기내과 실습을 들고 싶다고 지원서를 내었지만 미국에서도 워낙 순환기내과가 인기가 좋은 터라 지원했던 모든 학교에서 acceptance letter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 미국으로 일렉티브를 못 가나보다 하고 포기하려던 찰나에 한국에서 6주 선택의학 실습기간이 시작된 당일 날 예일대학교 류마토로지 내과 강인수 교수님과 연락이 되어 류마토로지 내과에 학생 자리가 하나 있다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마련하여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Orientation

실습 첫날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해외교환학생들을 총담담하는 정신과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박 제 영(본과 4학년)

미국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수한 상황들을 예를 들어가며 세심하게 설명해주었다. 그 외에도 예일 대학교 주변의 음식점들과 볼거리들을 소개해주시고 또 예일의 치안이 상당히 안전하니 항상 조심하라는 말도 잊지 않으셨다.

Inpatient Service

실습 둘째 날부터 정식으로 류마토로지내과 실습을 돌 수 있었다. 류마토로지내과는 한국 임상실습 때 경험해보지 못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예일대 류마토로지내과에는 수많은 교수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입원 환자들을 담당하는 attending은 한 달에 단 한 명이었다. 이렇게 attending이 된 교수는 한 달 동안 병원 내 입원 환자들의 consult를 담당하는 의무를 부여 받는다. Fellow도 똑같은 시스템이어서 해당 달의 담당인 fellow만 병원 내 입원 환자를 돌보았다.

병원 내 입원 환자를 진료할 때는 team approach로 환자를 보게 되었다. 한 팀은 교수-fellow-resident-student로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시스템이라 아주 신기했다. 이 팀에는 모두 각자만의 역할이 있었다. 일단 학생이 신규입원 환자에게 찾아가서 자세한 history taking과 세밀한 physical examination을 하고 정리된 환자 정보를 펠로우에게 프레젠테이션하고 나면 펠로우는 또 다시 환자를 찾아가서 추가로 물어보고 physical examination 몇 가지를 추가로 해본다. 이를 잘 정리해 attending에게 보고하게 된다. Attending은 이를 듣고 마지막으로 전체 팀과 함께 환자를 보러 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환자를 확인하게 되고 펠로우의 의견에 동의하면 그의 의견대로 치료를 진행하고 이견이 있으면 팀과 함께 상의한 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였다.

내가 놀란 것은 학생도 진료과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국에서와 달리 학생의 history taking과 physical examination은 정식 병원 기록에 남게 되고 또 이 정보를 펠로우가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즉 학생들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어떻게 의사 면허도 없는 학생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나 의문점을 갖던 중 며칠 미국의대생들과 환자를 보고 나니 나의 의문점이 해결되었다. 미국 의대생들의 History taking과 physical examination은 한치의 나무랄 데도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되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정보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여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능력이었다. Positive finding과 중요한 negative finding들을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펠로우에게 발표하는데 그저 놀라지만 할 따름이었다.

류마토로지 실습 첫 날 미국 학생들이 하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하는 법, 그리고 presentation 하는 법을 영어로 정리하여 수없이 연습하였다. 연습을 해보니 미국 의대생들도 얼마나 많은 연습 후에야 지금의 능력을 얻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실습 첫 주에는 류마토로지 attending도 내가 좀 못 미더웠던지 별 임무를 맡기지 않고 그냥 shadowing만

하게 하였다. 비싼 돈 주고 미국까지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걷기만 한 첫 주는 정말 괴로웠다. 이렇게 하다 아무것도 못하고 구경만 하다 한국에 돌아갈 것 같아 근심이 쌓여갔다. 그러나 하늘이 도와서인지 둘째 주에 r/o takayasu's disease로 입원하신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류마토로지 컨설트를 받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가족과 환자에게 수월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내가 진료의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였고 밤에도 환자 랩을 체크하고 가족도 안심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보이자 attending도 내 노력이 가상하였던지 칭찬을 해주기 시작하였다. 그 후부터는 한국사람이 아닌 환자들도 혼자 보고 오라고 부탁을 하였다. 외래 clinic이 없는 날이면 follow up 환자들을 내가 먼저 보고 가서 경과를 확인하고 랩을 체크하고 medical record를 작성해놓으면 교수님이 co-sign해주시는 미국 학생들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나의 담당 attending이었던 Dr. Bockenstedt와 한 시간 정도 면담을 하였다. 교수님은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 또 나에게 이번 health reform에 대해 아냐고 물어보셨다. 그 외에도 내가 나중에 꼭 미국에 다시 와서 의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였더니 미국에 올 때 추천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탁하라는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다.

Clinic Service

미국에도 대학 병원에 외래 clinic이 있었다. 외래의 개념은 한국과 비슷하였다. 입원할 정도가 아닌 경한 환자 또는 퇴원 후 follow up을 위한 환자들이 찾아왔다. 교수들은 외래 의무가 한국보다 훨씬 적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외래를 열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한 명의 교수가 외래에서 하루에 보는 환자의 수였다. 미국 일렉티브를 오기 전 일주일 동안 류마티스내과에 대해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서울대병원에서 류마티스내과 외래 참관을 하였다. 그 때 송영욱 교수님께서 하루에 보시던 환자 수가 100명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 명의 교수가 많아 봤자 하루에 20명 내외의 환자를 보았다. 외래 운영시스템은 한국이랑 달랐다. 한국에서는 교수님이 방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방에 레지던트가 있었지만 주로 교수님의 말씀을 컴퓨터에 입력하였지 진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단 펠로우가 먼저 환자를 보고 자세히 history taking과 physical examination을 한 후 이를 정리해서 밖에서 교수에게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교수가 들어와 보충적인 질문이나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하는 식이었다. 따라서 환자 한 명당 진료시간이 길면 30분 까지 늘어어나기도 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학생들도 가끔 외래 초진을 보게 해주는 교수님도 있었다.

외래에서 내가 참 감동을 받은 에피소드가 있다. 하루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온 SLE환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마약 남용 등 문제점이 많은 환자였는데 얼마 전에 애 아빠가 자기네 식구를 버리고 도망갔으며 막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위로하시며 한 시간 동안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정신과 의사도 아닌 류마토로지내과 의사가 딱딱한 외래 스케줄 속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보이는 인간미가 매우 감동적이었다.

미국의 외래환자들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니 한국과 특성이 매우 달랐다. 미국의 외래 환자들은 한국보다는 훨씬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자기의 병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알고 싶어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기가 먹는 약의 종류, 용량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자신의 병의 history도 자세히 알고 있어 의사가 어떤 질문을 하면 아주 자세한 사항까지 제시해서 알려주었다.

외래에선 참으로 다양한 환자군을 볼 수가 있었다. 사실 서울대병원 류마토로지내과에서 워낙 많은 환자군들을 보고 와서 처음 보는 질환은 드물었지만, 미국에는 흔하고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lyme disease 환자를 보았을때는 정말 신기했었다.

Journal club

VA hospital에서는 일주일 마다 한번씩 journal club을 열었다. 정형외과와 류마토로지내과가 합동으로 하는 컨퍼런스로 정형외과 과장이신 Dr. White가 매주 점심을 자비로 제공해서 가능케 한 모임이다. 정형외과와 류마토로지내과 펠로우들은 한 주씩 돌아가며 두 개의 과에 모두 상관된 논문을 하나 골라 리뷰해오는 것이다. 3학년 실습을 돌면서 서울대병원에서도 많은 논문 리뷰 시간에 참석했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journal club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한국 문화에서는 남한테 싫은 소리하는 것을 꺼려하여 논문 리뷰시간에는 보통 발표자가 조용히 본인의 발표를 하고 끝났다. 분위기도 상당히 엄숙하여서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시간에는 교수님들 몇 분만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journal club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일단 점심을 먹으면서 하니 상당히 분위기가 informal하였다. 학생 또는 교수 할 것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덕분에 펠로우의 발표는 2분에 한번씩 끊기기가 일수였고 점심시간 한 시간 동안 펠로우는 전체 논문 중 method 부분까지 밖에 발표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VA hospital attending이었던 Dr. Fraenkel의 논문 method 분석법이었다. Dr. Fraenkel은 논문을 쓴 의도, 논문에 왜 특정 실험법이 사용되었나, 논문의 데이터들은 validity가 있나 등등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논문 한편을 완벽히 분석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논문의 method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곤 하였다. 발표하는 펠로우들은 항상 Dr. Fraenkel의 이런 질문들에 진땀을 빼던 것이 생각난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논문 리뷰 방식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의 journal club 시간에서는 그 날 다룬 논문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이해한듯 하다. 학생인 나로서는 논문을 분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배운 것 같아 참 뿌듯한 시간이었다.

미국을 다녀와서 느낀 점

이번 4주간의 일렉티브 기간 동안 나는 참 많은 것을 배웠다. 류마토로지내과 4주간 일렉티브를 돌면서 내과 지식도 많이 배웠지만 사실 그 이상의 것을 얻은 것 같아 참 뿌듯하였다.

요즘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인 outlier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다. 이 책에 의하면 한 사람이 성공하는데 타고난 재능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느냐가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예시로(다음면에 계속)



라선병원 방문기

홍 건(70, 시카고)

지난 9월말과 10월에 걸쳐서 잠시 북한의 라선병원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다녀오신 북한을 저도 꼭 다녀오기를 희망하여 오다가, 금년 초에 병원에서 휴가를 받아놓고 소풍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미국 내 기독교인들이 주축으로 형성된 만나선교회라는 단체에서 그동안 병공장과 진료소를 차려 운영하여 왔었는데, 작년 2008년 6월 10일에 50 병상의 입원실을 갖춘 라선 신흥인민병원을 개원하였고, Phillips사의 기술 제휴로 중국 Neusoft 의료가 회사에서 제조한 Sprial CT Scan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였습니다. 60여명의 북한인들이 근무하고 있고, 미국 각 지역에서 자원 봉사자 의료진이 1년에 5-6 차례 방문하여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유도탄 발사 등에 이어, 특히 금년 초에 미국 방송사 여기자 Euna Lee와 Laura Ling 두 명이 억류되어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다행히 Clinton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데려오는데 성공하여 비교적 두 나라의 관계가 호전되었고, 한국에서도 현대직원과 억류되었던 어부 4명이 돌아오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는 등 좋은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사기 전에 같은 과에서 일하는 동료의사들이 간곡히 만류하며 여행을 취소하라는 권고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좋은 말로 설명하고 허락을 받고나서, 무사히 돌아와서 병원일에 지장이 없게 하라는데 동의하고 여행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드디어 9월 25일 금요일 하루의 병원일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저녁때 집사람이 운전을 하여 공항으로 데려다 주어서 짧으나마 북한 방문의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로스앤젤스를 거쳐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일행들과 인사를 나누고,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기간 동안의 주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중국 연변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28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중국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 미국에서 가지고 간 contrast agent (조영제) 등을 압류 당하고 다른 분들이 가지고 간 귀중한 약품들도 빼앗기는 바람에, 실의에 차서 공항 밖으로 나가니 현지인 중국 직원이 걱정 말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나중에 저녁을 먹고 있는 중에 공항 세관에 압류되었던 모든 약품들을 전부 찾아와서 과연 그분들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을 연길에서 제일 좋다는 백산 호텔에서 머물고, 다음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우리들이 가지고 간 짐 외에도 라선에서 필요한 약품들과 식료품과 병에 들은 식수 등을 가득 싣고 출발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도문을 지나면서 두만강을 끼고 달리는 버스의 창을 통하여 강 하나를 두고 건너편에 북한 땅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쪽의 길은 최근 완성된 고속도로와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바라보면서 포장도 잘된 길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운전을 하고, 2시간 반 만에 중국 훈춘에서 연결된 다리를 통해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들어가

게 되었습니다. 예측한대로 북한 측의 원정 다리의 입국수속은 많은 중국 화물 운전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수속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바람에 1시간 35분 가량을 보내고 입국증서에 도장을 받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북한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체류하는 동안 저희들을 안내하고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될 지도원 두 분 안선생과 최선생이 우리를 맞이하여 주었고 버스에 동승하고, 포장이 안 된 높은 산골길을 꼬불꼬불운전을 하여 32마일 정도의 길을 2시간정도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내게 될 남산 호텔은 라진시의 한가운데 남산광장 바로 옆에 위치한 좋은 자리에서, 광장 한가운데에 높은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탑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붉은 형광에 쓰여 있는 구호들은 과연 북한에 도착하였구나 하는 것을 실감나게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 속에 영생하는 혈혈 충신이 되자."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 "가는 길 험해도 웃으며 가자." 며칠을 지내는 동안 그러한 구호들이 눈에 익게 되고 자연스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료 선교의 주목적은 라선 인민병원을 방문하여 CAT Scan (단층촬영기기)를 주로 사용하여 그곳의 현지 의사인 Dr. 남진 선생과 같이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환자들의 CT 사진을 찍고 진단을 하며, 또 그동안 검사하였던 환자들의 케이스들을 같이 review 하면서, 앞으로 Dr. 남이 혼자서 판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오후 4시에는 power point로 강의를 하여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에는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자국인 의사, 대개 방사선과 의사가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하므로 어려운 것 같았으나 그때그때 소통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한글로 강의를 처음 한다고 하여 준비를 하고 가슴이 설레며 걱정을 하였는데, 막상 강의를 시작을 해보니 영어로 40년 동안 쓰던 의학영어를 한글로 바르게 말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방문하게 되면 의학 용어를 한글로 공부하여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bronchogenic carcinoma는 폐암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면 bronchoalveolar carcinoma 라고 한다면 한글로 무엇이라 할지 알 듯도 모를 듯하여 애를 먹었습니다. 다시 의과대학에서 시작 하는 것처럼 의학 용어

를 한글로 외어야 되겠습니다. CT Scan 을 읽으면서 생각보다도 폐암, 그것도 상당히 전이가 많이 된 중증의 환자들과 체장암 환자들을 여럿을 보면서 그 다음 치료의 단계의 가능성을 상의할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같이 간 분들은 미국에서 11명이 같이 방문을 했는데 그중에 부인과 같이 온 의사 2명과 이번 팀을 이끌고 수고한 Dr. 리 라는 분을 합해 저까지 의사가 4명이었습니다. 의과 의사인 Dr. 안영국(서울의대후배),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 Dr. 로명재 두분은 매일 수술실에서 북한의사들과 직접 수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들을 했으며, 간호사들은 수술실 등에서 활동을 했고, 나머지 여자분들은 가지고 간 안경을 환자들을 한분 한분 일일이 검안을 하고 도수가 맞는 안경을 골라주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각자 맡은 분야에서 성실히 일을 하였고 같이 일하던 북한의 의사들과 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과업이 끝난 후에 병원 마당에 배구 네트를 설치하고 방문한 팀과 병원 직원 간에 친선 배구 시합을 가졌습니다. 병원 의사들 중에 배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우리 측은 사람도 모자라고 임시로 꾸어온 선수까지 포함한 방문객 팀이 도저히 이기지를 못했으나 경기를 화기애애하게 진행하고 즐거운 시간을 지내며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체류하는 동안 빵 공장과 동봉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학습장들을 만드는 것을 관찰할 기회가 있

었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여자분들이 정성으로 매끼를 맛있게 준비하여 주셔서 음식을 식사하는데 아무 불편한 점이 없었고, 오히려 하루는 그곳의 명품 '꽃게' 그리고 다음 날은 '큰 게'를 배풀어 주어서 풍성한 식탁을 마음껏 즐기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호텔밖에 나가서 조깅을 하는 분도 있었고, 여럿이 지도원의 안내로 바닷가에 위치한 공원에 가서 라진 항을 볼 기회가 있었고, 하루는 뒷산에 '태양산 공원'이라는 곳에 올라가 라진 항을 한눈에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사람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나와 길바닥을 쓸면서 하루를 시작하여 길에 종이 한 장 떨어진 것이 없고 매우 깨끗한 풍경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돌아오기 전날 만나선교회에서 후원하는 '제3요양소'라는 결핵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하는 곳을 방문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작은 개울이 흐르는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환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여의사로 부터 상황을 보고를 받고 잠시 돌아볼 기회가 있었고, 갈 때는 돼지 한 마리를 선물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떠난 후에 잔치를 열리라 생각하니 흐뭇하였습니다. 라진 시내에 있는 '남산유치원'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참관하였

고, 가야금과 북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교실도 들어가서 보았고, 체조를 배우는 교실도 들어가 어린 나이에 훌륭한 체조를 하는 감격찬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쳐서 격려를 하여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비파섬'이라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방문하여, 바닷가에서 싱싱한 새우를 낚것으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물로 배불리 먹고 사진도 찍고, 유람선 같은 배를 타고 구멍대를 입고 동해 바다에 나가서 물개와 갈매기들이 반겨주는 바윗돌이 있는 곳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즐겼습니다. 오후에는 '장마당'이라는 곳을 방문하여 미국에서 같이 간 사람들에게 5만원씩 인민폐를 나누어 주고 (약 미화 15불 가량 상당)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장마당에서 말린 오징어와 북어 등을 직접 사는 기회를 가졌고 다른 분들이 사진 것과 비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에서의 체류도 끝이 나서 병원의 의사들 간호사들과 모든 정든 분들과 기념 촬영도 하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다시 버스를 타고 왔던 길을 돌아와 중국과 만나는 원정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지도원들과 헤어져서 중국 훈춘을 거쳐서 연변으로 돌아 왔습니다. 백산 호텔에 다시 묵으면서 그 다음날은 꿈에도 그리던 백두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중국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부르고 관광객들이 줄이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입구 주차장에 세워놓고 표를 사서 두 번을 차를 바꾸어 타게 되어 있어, 마지막의 가파른 길은 SUV 지프차로 속달된 운전사가 꼬불꼬불한 길을 쓴살같이 달려 손님들을 정상까지 무사히 올려다 주었습니다. 10월 초 였는데 전날 내린 눈이 살짝 덮인 북한쪽 산봉우리들을 멀리 보면서 감탄을 하고 감개무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사진을 찍고,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에 옷깃을 여미면서 아름다운 백두산 천지를 내려다보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차를 갈아타는 곳에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차를 타고 '장백폭포'를 가서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고, 온천물에 익힌 계란을 깨어서 먹으면서 얼은 몸을 녹였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중국이 백두산을 이용하여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용정을 거쳐 연길시로 돌아와서 '꼬치'전문집에서 여러 가지 고기를 쇠꼬챙이에 끼워서 각 상위에 놓인 작은 화로에다 즉석에서 구워서 먹는 요리를 들면서 그곳의 고유한 음식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북한과 연길 방문도 끝이 나고 모든 대원들과 같이 주일 아침 7시에 연길시 교회에 가서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다른 분들은 인천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떠나고, 저는 이틀을 더 연길시에 머무르면서 연변과학 기술대학에서 수고하시는 교수님 댁에서 신세를 지면서 학교의 실정을 직접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8년 전에 연길시가 내려다보이는 동산위에 있는 공동묘지 자리에 대학을 시작한다고 할 때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하필이면 묘지에다 집을 짓느냐고 반대를 했다고 하나, 지금은 도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가 되었다고 하고, 교회는 옛날 화장터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주일 예배때 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날은 용정을 둘러 대성중학교를 방문하여 옛날 학교 건물을(다음면에 계속)

서울의대동창회에서 주도하는 동구라파 5개국을 구경하러 뉴욕에서 4월 28일 떠나 5월 9일에 돌아오는 여정에 참석했다. 마침 신종 플루가 멕시코에서 발생하여 뉴욕까지 건너와 학교를 닫는 소동을 치던 때라 취소될까봐 걱정했는데 예정대로 떠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

델타 항공으로 뉴욕을 떠나 오후 5시에 떠나 다음날 아침 독일 베를린에 도착 곧 바로 포츠담 회의가 열렸던 역사 깊은 체칠리엔호프 궁정 즉 프레데릭 이세의 별궁으로 독일 로코코 전통양식의 걸작인 상주시 궁정 등을 관람했다.

포츠담은 아담한 시골도시이고 55%가 국립공원이다. Cecilia palace는 그 당시 왕자가 노후에 거주하기 위해 지었던 것이다. 포츠담 회담은 1945년 5월 5일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4개국이 모여서 '군사정책'이 형성되어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된 역사적인 회담이다.

그날 오후 베를린으로 돌아와 시내 관광하고 샤토텐 궁정, 부란델부르크 문, 보리수 거리, 카이사 빌헬름 교회, 베를린 장벽, 마르크스 광장 등을 구경했다.

다음날 3일째는 작센주의 수도인 동독지역의 Dresdam으로 이동, 동구라파의 파리라고 불리울만큼 아름다운 시내관광을 즐겼다.

애벨 강변에 있는 쿠르즈 교회, 보의 태라스, 오페라 극장, 성삼위일체 성당 등을 구경했다. 이차대전 말기에 무차별 폭격을 당한 자취가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계속 복구를 하고 있으나 시커멓게 그을린 고대 고층 건물이 그때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레이저로 갈고 닦아내면 된다는데 너무나 비용이 엄청나서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하는데 오히려 역사적 상처가 남아있어 관광가치가 있는 같다.

Elbe 강에 Augustus 다리는 멋진 풍경이어서 유네스코 지정 명소였었는데 최근에 교통난을 덜기 위해 양쪽에 다리 하나씩을 더 건설하는 바람에 원래의 풍경을 손상시켰다하여 유네스코 지정 명소에서 제명을 당했다 한다. 이차대전 말기에 무차별 폭격한 UN군에 대한 원망의 데모가 매년 여기서 열린다니 자기들이 전쟁을 시작했고 무차별한 파괴와 살인을 주도 없이 전 유럽에 걸쳐 저질렀던 독일인들이 너무나 염치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독일인 전체가 저지른 일은 아니고 또 젊은 독일인들이 저지른 일 더욱 아니지만.

4일째, 전용버스로 두 시간 20분 걸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도착했다. 프라하의 현재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Prague 성, 황금소, 성 비트 성당 내부와 칼렐대교 등을 구경한 후 바츨라프 광장에 도착했다. 이 광장에는 8백년전에 만들어 졌다는 천문시계를 구경하는 사람들로 꽂차있었다. 아직도 일본도 틀리지 않은 이 시계는 정오 12시와 밤 12시에 고전 음악이 나오고 중세기 귀족 복장을 한 멋진 남녀 파렛들이 나와서 춤을 춘다.

5일째, 프라하 시내구경후 Cesky Krunio로 이동하는데 3시간30분 걸렸다. 이곳이 유네스코 지정 중세기 유적지로 유명하다. 또다시 프라하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야경을 구경하고 오페라 하우스에서 교향곡을 감상했다.

프라하로 돌아가는 길에 Fekeen Switzzland 라는 곳을 지났는데 마치 그랜드 캐년과 비슷한 장관이 이 Valta 강과 Elbe 강이 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절경이다. 강가에는 스위스랜드와 비슷한 주택들이 즐비해 있다.

6일째, 프라하 시내관광을 하고 중세마을(Tele)로 이동하여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텔츠 관광, 체코 제2의 도시인 공업도시 Brumo로 이동했다. 이곳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고 한국 상사와 지점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 늘고 있다 한다. 넓은 도로를 현대차

인물들이 조각되어 있는 신비한 관광 후에는 지하 100미터에서 엘리베이터로 30초 만에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다.

제일 인상 깊은 것은 큰 샹드리아 등이 왕궁 또는 성당 천장에 매달려 있고 성인들의 초상이 조각되어 있는 광장에 장식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동구라파 여행기

박해영(김갑군 54, 동문부인)



공장을 위해 건설하는 등 한국 붐이 이루어지고 있다.

7일째, 아침 일찍 Bromo를 떠나 5시간 30분 걸려 Oswiecim 악명 높은 유대인 수용소 유적이라 할까, 박물관이라 할까. 인간의 잔인성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타낸 유네스코 지정지에 도착해서 2시간에 걸쳐 내부를 보며 새롭게 배운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종교인, 불구자, 집시 등 할 것 없이 나치정권에 반항하거나 쓸모없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동구라파에서 끌려와서 중노동을 시키고 학살한 후 시체 어느 부분 하나 버리지 않고 사용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버스 안에서 계속 농담과 노래 등으로 지루하지 않게 지내던 일행들도 폴란드의 제2의 도시 Krokow로 이동하는 버스 안은 조용하고 침묵한 표정들 이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유난히 싫어했던 이유는 자기 모친이 빗에 쪼들려 20년 연상인 공무원과 결혼했었다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개가 사채업자였고 수전노였다. 히틀러는 호가가 되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서 미술학교에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굶은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두 번이나 입학할 지원했으나 낙방했고 그때 심사원들이 다 유대인이었다 한다. 그 후 히틀러의 모친은 20년 연하인 유대인과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었다 한다. Krokow는 옛 16세기말까지 폴란드의 수도였으며 최초의 유네스코 지정 문화도시였다.

폴란드의 유명 인물인 John Paul 교왕은 폴란드의 수도에서 태어나 문학, 연극을 전공했고 시집을 두 편이나 발간했었다. 그 후 종교계에 몸을 바쳤는데 그 당시 폴란드인의 98%가 천주교 신자였다. 지금은 90% 정도이다. 또 폴란드가 자랑하는 인물은 퀴리부인이다. 퀴리부인은 불란서에서 공부하다가 러시아 태생 과학자와 결혼하여 연구생활을 하던 중에 Leukaemia로 사망했다 한다.

8일째, 13세기부터 개발하여 현재까지도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최대의 saltmine을 구경했다. 1978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Wealiezka 소금광산을 두 시간에 걸쳐 구경했다. 계단식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채굴기술과 구시대의

소금으로 조각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다. 안내자를 잘 따라다녀야지 그 속에서 길을 잃으면 나올 수 없는 미로, 구석구석에 조각과 계시판 등이 있는데 전부 소금으로 만들어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다.

맨 밑에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동구라파 출신인 유명한 음악가들이 작곡한 음악이 은은히 흘러나오고 또 괴테가 다녀갔다는 호수 가에는 그의 동상이 역시 소금으로 새겨져 있고 그의 유명한 시들이 벽에 새겨져 있는데 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Krokow에서 오후에는 시내관광을 했다. 9세기 Barbel 황제가 살던 Barbel place와 그의 가족들의 묘지를 공원으로 만든 Barbel park를 구경했다. 13세기 고딕 양식의 성모마리아 성당을 구경하고 거리가 13미터나 되는 대형 시계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일본도 틀리지 않는다는 구 시청 앞 광장을 구경했다.

9일째, 10일째, 조식후 동구라파의 알프스라 불리는 Zochodnie로 이동하여 등산열차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 중세에서 시간이 멈춘듯한 시내 마을 감상하고 구소련 공산당 간부들의 휴양소였던 Trtrywysokie로 이동했는데 경치가 좋고 아담한 곳이었다.

11일째, 부다페스트로 향해 6시간 달렸는데 넓은 평야에 끝없이 퍼어 있는 노란 유채화가 아름다웠다. 이 꽃은 샐러드로 해먹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식용유로 또는 공업용으로 쓰다니 한국말로 유채화는 수궁이 가나 영어로는 rape flower라고 하니 그 이름의 유래는 이해하기 힘들다. 유채화는 한국 제주도에서도 봤으나 그렇게 넓은 평야가 없는 제주도와는 달리 동구라파의 넓은 평야에서 볼 수 있는 장관이었다.

Slovakia의 높은 산악지대에는 얼마 전 토네이도와 지진으로 파괴된 산마울이 아직도 그때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긴 드라이브에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농담을 재미있게 들려준 정정수 동문은 조만간 농담골목을 출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니 큰 기대가 된다. 이 여행의 마지막 일정인 부다페스트는 Buda와 Pest가 아름다운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시내관광중 가장 인상 깊은 곳을 어부들의 요새이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어부들이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 높은 탑에 올라와 다뉴브 강을 사찰했었다 한다. 건국 1천년을 기념하여 로만 네스크 양식으로 건축한 이 슈바르 성당이 아름답고 건국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애국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영웅의 광장'이 넓고 웅장하다. 호텔 안에는 시설이 잘된 온천장이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즐길 수 있었다. 저녁에는 다뉴브 강을 전용 유람선으로 크루즈 했는데 양쪽에 아름다운 시내와 언덕의 야경이 환렷했다. 이 크루즈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다. 낮에 다리를 건너면서 시내 구경을 하는데 해병복장을 한 아프리카인이 크루즈를 추천하면서 티켓을 팔고 있었다. 우리는 크루즈 선약이 되어 있어서 티켓이 필요 없다고 하자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서 미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자기 형이 미국에서 산다고 했다. 미국 어디서 사느냐 묻자 워싱턴 디씨의 화이트 하우스에서 산다고 하며 그 이름은 오바마라고 해서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도 그 사람 잘 안다고 했다.

부다페스트는 중국의 상해와 같이 동구라파에서는 제일 개방된 국제도시인 것 같다. 옛날에 징기스칸이 중동아시아에서 시작하여 동구라파를 침략했을 때 부다페스트까지 오다가 그는 서거하고 그 자손들이 부다페스트에 도착하여 다뉴브 강이 너무 깊고 넓어서 그 이상 침략을 포기하고 여기에 정착했다. 한다.

징기스칸은 어느 나라를 점령했을 때 마다 그곳에서 제일가는 미녀를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차츰 서양화 되었다는데 아직도 헝가리에는 동양적인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지금도 last name을 먼저 쓰는 동양적인 풍습이 있다는 게 참 신렷했다. 동구라파인은 어디가나 음악을 즐기는 악사들이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걸 볼 수 있고 낭만적이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 보였다.

부다페스트에서 뉴욕까지 9시간 반, 긴 여행이었지만 의미가 있고 즐거운 여행이었다.



<전면에서> 박물관으로 보존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 한 부분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운동주 시인의 시가 적힌 기념비를 보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일송정을 올라가 해란강을 내려다보고 그림도 그리고, 그 옛날 독립운동을 하시던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문이라는 곳에 가서 전주비빔밥으로 점심을 먹고 다리 건너에 북한 땅을 다시 한 번 건너다 볼 수 있었고 짧은 연변의 기간도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 연길공항을 출발 하여 인천과 로스앤젤스를 거쳐 시카고를 도착하니, 집사람이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감사하였습니다. 내년 2010년 10월에 서울에서 있을 1970년 동기 40주년 재상봉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갈때 그전 주일에 다시 라진을 방문하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다른 전공과 전문의 동기 분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싶어서 소개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눈에 선한 라선병원의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와 환자들이 기억에 생생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Legacy

정정수(62, 펜실베이니아)

작년 故 S 형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3시간의 폭우를 뚫고 도착한 뉴저지 포트리 프랭크 패디 장의사는 너무 많은 조문객으로 파킹장, 실내 전 좌석이 넘쳐 제대로 예의도 못 갖추고 온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일주기와 Estee Song의 출판 기념회를 초대받아 뉴저지 하켄사의 고급 이태리 음식점 마지아노에 도착하니 故 S 형이 그렇게 아끼던 많은 서울의대 선배님들, 문인협회,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맛있는 음식, 와인과 아들 삼총사, 친지, 문인들이 고인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며 업적을 기리면서 보낸 하루 저녁은 너무나 좋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포도주로 만취되어 있는데 한 아들이 나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맥주를 꼭 마셔야 한다기에 늦게 두 병을 마셨더니 몽롱한 상태로 옆에 계신 이규용(41년 졸, 우리 동기동창 故 박성유 군의 장인) 선배님 옆 모습이 꼭 따님인 Mrs. 박성유 같이 보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故 S 형은 나의 2년 후배지만 모든 면에서 앞서 가고 있어 늘 존경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울의대 미주 총동창회 회장 때는 하계 학술대회를 버뮤다 Cruise 선상에서 환상적인 모임을 같이 한 추억도 있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 회장으로 계실 때는 16명의 의사대표들과 함께 이북을 방문하여 의약품 기구들을 전달하여 김일성이 오랜 전에 사용했던 별장에서 그들이 정성껏 차려주는 꽃게 등의 만찬을 받은 것, 이북 해변가에서 맥주와 조개구이를 16명이 싹껏 먹고 \$46 밖에 안낸 추억도 같이 했습니다. 또 길이 아주 나쁜 자동차 길의

지루함을 달래려다 농담 중 허선행의 "대한민국 만세" 나의 "지리산 공비 토벌" 등 단어가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 모든 일행의 안전을 위협 할뻔한 간담 서늘한 추억도 함께 하였습니다.

Estee Song의 "티티새는 여름에 울지 않는다"와 "별 하나에 당신, 별 하나에 나" 정재욱 병상 일지를 선물 받고 집에 와서 우리 부부는 눈물샘이 마르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투병 중에도 故 S 형은 친구 친지들의 조경사에 불편하고 힘없고 초췌한 모습으로 끝까지 참석한 것을 보고 정말 존경을 받아야 하는 훌륭한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훌륭한 아들 삼총사와 사랑하는 Estee를 남겨 놓고 조금 너무 일찍 떠났음에 모두들 안타까운 마음 한이 없지만 아름다운 Legacy를 남겨 놓고 갔으니 부디 천주님의 품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 까지 편안히 쉬십시오.

여기 제가 평생 좌우명으로 쓰고 있는 한문격언 영문 글을 기억력 더 감퇴 전에 인쇄 보관 나누고 싶어 부록으로 붙입니다.

天有不測風雨 人有朝夕禍福 生死有命 人命在天 人間不學 如嘆嗟夜行 忍是百行之本

苦盡甘來 興盡悲來 笑顏大吉 達觀人生 萬事從寬 其福自厚 一切唯心造 諸行無常 生滅不二

色即是空 空即是色 會者定離 謙謙君子 甬涉大川 忍辱忍痛 默啜對處

For everything, there is an appointed season and time for everything under heaven.

A time for sharing, a time for caring.

A time for loving, a time for giving.

A time for remembering, a time for parting.

Dear Dr. & Mrs. Song: you have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and your LEGACY will remain for long time in the heart of your cherished peoples and god will bless your family and Dr. Song in heaven.

Dr. 송 일주기를 기해

고애자(Mrs. 이운순58, 대뉴욕)

Dr. 송관호는 동창회를 위한 일들은 모든 시간과 노력을 바쳐왔던 분으로 우리 동창회의 상징이었다. 그 분이 떠나셨다는 것을 우리 동창회로서는 큰 별을 잃은 것과 같다. 동창회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도 기여하여 정신분석학 연구발표, 청소년의 구제책 등 훌륭한 기사를 여러 해 방송하셨다. 그리고 주지사 상까지 받으셨다.

일 년 후 Mrs. 송이 수많은 동창들을 초대하여 일주년 기념회를 한 것은 아주 귀한 일이었다. Mrs. 송은 많은 손님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면서 테이블마다 신경을 쓰시는 그의 모습은 지난날의 그의 천진난만한 웃음은 사라졌으나 그의 품행은 침착하고 우아하였다. 특히 그날의 의상은 짙은 은색, 색도 적절했고 디자인도 잘 어울렸다.

동창들 이외에 문인들도 오셔서 깨끗하고 심금을 울리는 저녁이 되었다. 서정강 시인은 Memory라는 노래를 불러주셨고, 52년도 김정준 선배님은 서정주 시를 준비도 없었던만 암송하셨다. 내용인즉

네 너 찾아왔다.
새벽달이 울 때마다
너 얼마나 보고 싶었다.
내 부르는 소리 들리더냐.
그날 꽃피는 산
상여 넘어간 다음.
나는 동자 속에는
빈 하늘만 남더니
비만 자꾸 오구..
강물은 또 몇 천 년인지
한번가면 소식 없네..

푸짐한 음식은 계속 나왔으며 운치 있는 접시들은 이태리의 고풍을 풍기

면서 음식을 더욱 더 맛있게 하였다. 그리고 많은 음식들은 떠날 때 싸주어 집에 와서까지 며칠 동안 즐기게 한 고급음식점의 지혜가 더 인상적이었다.

그날 강조된 것은 세 아들 Mark, Brian, Gene의 아버지의 대한 회고담인데 그들은 아버지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함으로 분위기를 화사하게 하였다. 세 아들은 크게 성공하였으며 인물이 뛰어나고 체격이 현철하여 모두들 사교적으로 대화를 자유롭게 계속할 수 있는 성품들이라 더욱 손님을 기쁘게 하였으며,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그들의 모습이 완연했다.

돌아가시기 두 달 전 Mohank에 브라이언 가족과 휴가를 즐길 때 우리 가족과 만나 같이 마차도 타고 다니곤 했었다. Mohank는 뉴욕시티에서 가까운 곳으로 유일한 19세기풍 리조트로 남아있는 곳이다. 1869년 쌍둥이 Smily 형제가 230에이커를 2만8천 달러에 사서 조그마한 tavern으로 한 것이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유원지가 되었다. 이유인즉 300만 년 묵은 바위 층의 산을 이루어 아래로 에메랄드색의 깊은 호수가 절경인 산속인 이유였다.

그때 닥터 송은 조용하셨으며 두 달 후 가신다는 느낌은 전혀 주지 않았다. 그때 Mrs. 송은 "견딜 만해요" 했다. 나는 전화도 못하고, 방해될 것 같아서... "전화는 무슨 전화예요" 하실 때 상대방의 죄의식을 씻어주시듯 Mrs. 송의 대답은 겸허했다.

이 기회에 고인을 추모하면서 두 권의 책 "별 하나에 당신 별 하나에 나", "여름이 되면 티티새는 울지 않는다" 를 출간하셔서 선물로 주셨다. 일 년 안에 이런 큰일을 성취하였음에 놀랐으며 여러 동창을 위해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신 Mrs. 송의 아량에 감사드리면서 Annual Ball 때면 두 분의 멋진 댄스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이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농담골목

강도가 재판에서 엄벌을 처형 받았습시다. 그가 신문기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내지 말아 주시오. 우리 집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지 않게 하고 싶소." 라고 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런데 왜 그런 범죄를 범했지요?" 라고 하니, "내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그런 줄 모르시나요? 우리가 모두 가족을 위해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면)

할머니가 알츠하이머로 양노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을 찾아가니, 그가 여자 환자 한 사람과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중얼거리를 "그가 좀 회복하고 있는 듯하다. 그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니 마음이 놓인다." (경)

알츠하이머로 오랫동안 양노원 생활을 해 온 영감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생일 파티에서 촛불을 꺼야 하는데, "내 처 어데 갔소?" 하면서 오래 전에 작고한 할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

립스틱 값이 오르는 이유?

- 립스틱 바르는 연령층이 내려갔기 때문.
- 전에는 한가지만 발랐는데 지금은 여러가지 종류가 다양해졌기 때문.
- 가수 임주리의 '립스틱 질게 바르고'란 노래가 유행하였기 때문.
- 키스를 자주하는 시대이기 때문.
- 남자들도 애용하기 때문. (이덕송)

좋은 생각중에서

-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기까지는 1분 밖에 안걸리고
-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1시간 밖에 안걸리고
-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하루 밖에 안걸리고
- 누군가를 잊는다는 평생이 걸립니다. - 허선행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